

2020 행복한 교육 명예기자를 모집합니다



응모자격

- 매월 1건 이상의 교육현장 소식을 취재·작성할 수 있는 성실한 분
- 만18세 이상의 교원, 학부모, 교육관계자, 대학(원)생 등
-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밴드 등을 통해 교육가족과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분
- ※ 기존 명예기자는 그동안의 활동 사항을 평가에 반영함

모집인원

- 00명

모집기간

- 2020년 1월 13일(월) ~ 2020년 2월 2일(일) 3주간

원서접수

- 「행복한 교육」 웹진(<http://happyedu.moe.go.kr>)에서 응모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이메일 송부(eduzine21@gmail.com)
- ※ 명예기자 지원서, 취재 기획서 각 1부 (단, 기존 명예기자는 소정 양식의 경력지원서 1부만 제출)
- 이메일 제목에 '명예기자 지원 000' 기재 필수

결과발표

- 2020년 2월 중순(웹진 공고/ 합격자 개별 연락)

문의

- <편집실> 02-2271-0992

행복한 교육

행복한 교육 2020년 1월 특별기획 새 학년 미리 준비하는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



Vol. 450. 2020. 1.



신년사·공정·포용·혁신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새 학년 미리 준비하는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한류 이끌 전통예술 인재 기른다'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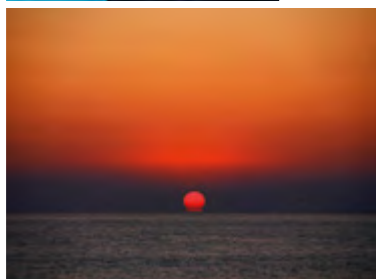
JANUARY 2020 Vol. 450

04



COVER STORY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교장 왕기철) 한국음악과 학생들이 신년호 표지를 장식했다. 우리 전통예술을 지키고 계승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60년 설립된 학교는 올해로 개교 60주년을 맞았다. 급게 차려입은 한복이 새해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24



28

32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duzine21@gmail.com)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74

Contents

특별기획

- 02 신년사
- 04 새 학년 미리 준비하는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
- 06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왜 중요한가?
- 08 초등학교 동학년 교사가 함께 만드는 수업
- 12 중학교 교사의 눈으로 보는 수업-평가
- 16 고등학교 교사의 눈으로 보는 수업-평가-기록
- 20 과정 중심 평가의 의미와 교사 역량 강화 방안

현장이야기

- 24 꿈이 영그는 현장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 28 삶과 교육 허경호 대구 동촌중학교 교사
- 32 아하! 진로체험 금융투자체험관 '파이낸셜 빌리지'
- 34 창업공방 오상훈 렉스로보 대표
- 36 EVENT 찰칵! 행복한 교육의 순간
- 37 명예기자 리포트 자유학기제, 연극활동으로 꿈에 날개 달기 외

정책이야기

- 40 정책N전망 미래 산업수요 대응을 위한 '전문대학 혁신방안'
- 42 2020 교육부 ① 새해 달라지는 교육정책
- 44 2020 교육부 ② 예산으로 보는 2020년 교육부
- 47 초점 교육기관 정부혁신 우수사례 ⑤ 강릉원주대학교
- 50 이슈1 문재인 정부 전반기 사회정책 성과와 과제
- 52 이슈2 2019 진로교육 한마당
- 56 대학교육 외국인 유학생 14만 명 시대, 고등교육 국제화 방향
- 60 꽃 피는 교육자치 "학교 숲속 친구들, 우리가 겨울나기 도와줄게" 외

정보이야기

- 62 교육포커스 일반고 전환이 자사고·외고·국제고 학생에게도 유익한 이유
- 66 교사상담실 '매너리즘' 극복하는 선생님들의 자세!
- 68 교육 소확행 탁 쌤과 산골 학교 아이들의 좌충우돌 한 해 살이
- 70 아이의 다락방 다문화 학생 모하메드의 고민
- 72 이야기 인문학 쥐구멍에도 벌이 드는 해
- 74 일상의 침표 새해, 주문진에서 맞는 해돋이
- 78 뉴스 브리핑 학생 맞춤형 다양한 교과서 개발 확대된다 외
- 80 행복 게시판

2020년 공정·포용·혁신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한 해 교육부는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 한 해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관심 덕분에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할 수 있었고, 반값등록금 수혜대상이 확대되었고, 만3~5세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7년 만에 인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은 현장에 안착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교육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도 분주했던 한 해였습니다. 교육계·체육계 성폭력 문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미성년 자녀의 논문공저자 등재 문제, 일부 사학의 구조적 비리 등 교육비리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자 노력했고, 관련 사안에 대한 집중조사를 하고 사학혁신 방안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중요한 교육제도의 변화도 예고하였습니다. 일부 소수 계층에게 유리하다고 평가받아 온 교육제도를 개선하고자 고교체제 개편과 대입공정성 강화 방향을 제시했고, 올 한 해 교육부가 성심을 다해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겸허하게 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공정하게 바뀌었는지 평가해 본다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며, 우리 사회 전반의 사회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부총리로서 2020년 한 해 동안 교육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제도개혁에 집중하겠습니다. 사회제도개혁의 방향은 공정, 포용, 혁신의 세 가지입니다.

우선,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제도는 반드시 개선해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부모의 힘이 어떤 특정한 제도를 통해 사실상 자녀에게 대물림되고, 이를 지켜본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자포자기하며 한국의 사회 시스템 자체를 불신하는 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있거나 외부의 개입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개선하고, 일시적 처방으로 끝나지 않도록 중장기 법제도 개선까지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제도개혁의 방향은 전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입니다. 저소득층과 긴급 위기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현재보다 더 촘촘하게 마련하겠습니다. 교육·주거·의료 등 인간의 존엄과 직결되는 삶의 영역에서 사각지대가 없어지도록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세 번째, 혁신의 기반인 인재양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민들의 일·학습·삶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통해 각 부처별 혁신인재 양성 계획과 추진과정을 조정해 효과적인 인재양성을 추진하고, 新기술에 대한 인재 집중양성을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인생 재도전 지원을 위해 대학교육-평생교육-직업훈련의 전 과정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학위가 없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교육받고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혁신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사회정책'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단기-중장기 정책으로 추진되도록 2020년 사회부총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사회부처 간의 효과적인 정책 연계와 적극적인 협업, 사회정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건언하겠습니다.

미래교육 시스템 구축과 교육 신뢰회복 추진

2020년 교육부는 지난해의 정책기조를 유지하여,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미래교육 시스템 구축과 교육의 신뢰회복을 핵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며, 교육부는 좋은 인재를 양성할 준비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과거 획일적 산업시대의 경쟁 중심, 우수 인재 선별 교육을 넘어 각자 관심 있는 부분이 다른 다양한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혁신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새로운 정책 발표 등을 통해 몇 가지 교육변화를 예고한 바 있으며, 이는 2020년 현장에 꼭 안착시키겠습니다.

특히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 고교학점

제 추진, 학교공간 혁신,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사학혁신 방안, 대학·전문대학 혁신 지원 방안,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의 10가지 정책은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고교체제를 혁신하고, 대입제도를 단순화하며, 고교학점제라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시작하고, 사학혁신을 통해 교육기관의 신뢰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 모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돌아갈 수도,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초·중·고 교육이 학교서열화에서 교육다양화로 나아가고, 우리 대학 교육이 미래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교육부는 10가지 정책을 안착해 교육제도의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 그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외부의 변화요인이 한국의 교육을 미래교육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교육거버넌스의 개편이 지난 한 해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미래교육체제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는 꼭 발족해야 합니다. 2020년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법이 처리되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교육부는 단 하나의 정책이라도 국민의 삶을 바꾸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에 보탬이 되는지 늘 사려 깊게 생각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고 소통하며 일할 것입니다. 나날이 새로워지는 교육, 어제보다 나은 교육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새 학년 미리 준비하는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

1.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왜 중요한가?
2. 초등학교 동학년 교사가 함께 만드는 수업
3. 중학교 교사의 눈으로 보는 수업-평가
4. 고등학교 교사의 눈으로 보는 수업-평가-기록
5. 과정 중심 평가의 의미와 교사 역량 강화 방안

학기 초, 선생님들은 고민에 빠진다. 교육과정 재구성에서부터 학생 참여 수업, 과정 중심 평가와 성장 중심 기록이라는 디딤돌을 밟으며 올 한 해는 교육활동을 멋지게 하리라 다짐한다.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 작동하는 일련의 교육활동으로 교사는 수업 디자인과 관찰, 그리고 피드백을, 학생은 기획과 수업참여로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이 '수업의도'와 '성장'을 중심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일어난다.

학기 초, 아직은 수레바퀴가 구르지 않을 때 선생님들이 앞으로 만날 학생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학습하게 될 학습요소를 중심으로 교육활동의 모든 과정을 구성하는 작업이 일체화이며, 지금 이 시기가 바로 적기이다. 여기서는 일체화의 의미와 초·중·고교의 현장 적용 사례 등을 소개한다.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왜 중요한가?

일체화란 무엇인가

학기 초, 교사는 고민이다.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 참여 수업, 과정 중심 평가와 성장 중심 기록이라는 디딤돌을 밟으며 올 한 해는 교육활동을 멋지게 하리라 다짐을 한다. 다른 교사들의 사례를 찾아보며 디자인한다.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사례를 보며 부러워하다가, 멋진 수업과 평가 사례를 만나 좌절하기도 한다. 의기소침하여 이 시기에 우물쭈물하다 보면 커다란 수레바퀴는 여지없이 다가온다. 정신없이 수레바퀴를 돌리다 보면 또다시 1년이 간다.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은 유기적인 교육활동이다. 분절적이지 않다는 말이다. 이를 개념화한 용어가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이하 일체화)'이다. 혹자는 '일체화'가 수업방식의 변화를 말한다고도 하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위한 것이라고도 한다. 그렇지 않다. 자신의 관점에 따라 일체화의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한다. 수업방법을 중요하다고 여기면 다른 부분은 잡무로 간주한다.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지나치게 형식적인 부분을 강조한다. 기록은 대입에만 매몰되기도 한다. 일체화는 이러한 분절적 교육활동을 연결한다.

일체화란 무엇인가. 이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 작동하는 일련의 교육활동이다. 교사는 수업 디자인과 관찰, 그리고 피드백을, 학생은 기획과 수업참여로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이 '수업 의도'와 '성장'을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일어난다.

먼저 교사는 자신이 마주치는 학생을 고려하여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주체적인 학습자로 수업에 참여하여 배움이 일어나게 돕는다(배움 중심 수업). 학생의 배움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필요하다. 수업 활동 과정을 관찰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평가를 진행한다(과정 중심 평가). 이 평가 자료는 학생들의 성장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기록으로 남긴다(성장 중심 기록).

다시 말하면, 성취기준(학습목표)에 쉽게 도달하기 위해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고, 학생활동 중심의 수업을 하고 그 과정 안에서 평가를 하는 교육활동의 일체화를 의미하며 이는 수업과 평가의 내실화가 주목적이다.

수업은 교과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이 있다. 어떤 수업이든 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종합예술이며 행위예술이다. 어느 누가 일방으로 할 수 없다. 동시에 교사는 다른 교사들과 함께 수업을 디자인하고 평가를 한다. 그렇기에 동료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체화를

학기 초 일체화를 위한 출발

학기 초, 아직은 수레바퀴가 구르지 않을 때 내가 만날 학생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학습하게 될 학습요소를 중심으로 교육활동의 모든 과정을 구성하는 작업, 이것이 바로 일체화이다.

하기 위해서는 소통하는 학교 문화가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체화는 교사 앞에 있는 학생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출발한다. 학생이 내 수업을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도와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살핀다. 일체화의 전 과정은 교사와 학생의 개별적인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학생의 상황, 학교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게 된다.

일체화는 특별하고 전혀 새로운 교수방법이 아니다. 이미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활동을 연속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지식 층위와 역량을 교육활동의 중심에 놓고 교사와 학생의 역할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기 초에 일체화를 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학기 초에 참고할 만한 중요한 자료는 바로 '교육과정 총론'과 '교과교육과정'이다. 그중에서도 '교과교육과정'은 특별한 수고 없이 교육활동을 일체화로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교과교육과정의 체제는 '단원 개관-성취기준-탐구 주제 및 활동(예시)-학습요소-성취기준 해설-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평가방법 및 유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원 개관으로 단원의 성격을 파악한 후 성취기준을 읽으며 핵심개념과 주요 활동을 파악한다. 그리고 예시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적절한 탐구활동을 계획하면 된다. 학습요소에서는 수업시간에 꼭 살펴야 할 내용, 지식을 이해한 후 평가 요소에 반영한다. 성취기준 해설은 단원이 요구하는 수업 수준과 연계 과목을 확인하고 수업형태와 학습단계(지식위계) 등을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에서, 평가형태, 평가 내용을 평가방법 및 유의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심지어 여기에는 적당한 수업방법이나 평가안도 제시하고 있다. 선택하고 디자인하는 것은 교사들의 몫이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학습요소이다.

일체화는 번거롭거나 어렵지 않다. 학생들이 학습을 통하여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일체화의 모든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 디자인하면 된다. 학기 초, 아직은 수레바퀴가 구르지 않을 때 내가 만날 학생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학습하게 될 학습요소를 중심으로 교육활동의 모든 과정을 구성하는 작업, 이것이 바로 일체화이다.

일체화의 출발은 내 앞에 있는 학생이라고 했다. 학생 개인을 바라보며 그의 성장을 도와주는 마음에서 일체화는 시작된다. ②

[초등학교 동학년 교사가 함께 만드는 수업] 집단지성으로 만들어가는 PBL 기반 교육과정 재구성

01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서 시작하지?

PBL(Project based learning)은 이름만 들어도 뭔가 엄청난 것(?) 같은 느낌에 나 같은 평범한 교사는 시도해 볼 용기마저 나지 않을 정도의 넘사벽(넘을 수 없는 차원의 벽) 같은 존재였다. 시도해볼까 말까를 고민하던 때, '올해 본교 교육 방향은 PBL 기반의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추진한다.'라는 학교 차원의 결정은 당혹감과 함께 그간 갈팡질팡하던 고민을 싹둑 잘라주었다.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함께 고민하고 해서 PBL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하나씩 품고 만난 4학년 교원학습공동체 첫 모임. 첫 모임은 예상 밖의 학교 결정과 PBL에 대한 불신, 불안, 불만의 성토로 대화가 시작됐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을 돌이킬 수는 없는 법. 일단 서로의 생각 차이를 좁히고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PBL 관련 도서, 연구자료, 강의 등을 통해 각자 PBL의 정의, 운영 방법, 그리고 교육과정 재구성 주제 찾기가 숙제였다.

02 집단지성의 무한한 가능성

두 번째 교원학습공동체 모임에서는 우리의 PBL에 대한 인식변화를 알 수 있었다. 그간 PBL이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PBL 수업에서 교사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우리의 계획대로 될까?', '진짜 학생들이 좋아할까?'라는 호기심의 대상으로 전환되었다.

첫 PBL 주제는 '우정'. 4학년이 되어 처음으로 경험해 본 학교폭력에방실태조사 기간과 맞물려 학생들에게 더 의미 있게 다가갈 것이며, 평화로운 분위기를 학기 초에 자연스럽게 조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가 컸다. '우정'을 주제로 즉석에서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했다. 관련 교과, 관련 단원, 성취기준, 활동내용, 최근 학생들의 흥미를 반영할 수 있는 자료(드라마, 영화, 만화 등등), 우정에 관한 책과 이야기 등등.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1.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핵심역량, 성취기준)
2. 학생들이 배운 내용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방법)
3. 학생들은 어떤 내용으로 배움을 표현할 것인가? (학습내용)
4. 학생들이 흥미로워할 요소는 무엇인가? (학습자료, 학습기법)

내키는 대로 작성한 마인드맵[그림]을 사진으로 찍어 동학년 대화방에 공유한 다음 날, 입이 떡 벌어지는 수준의 마인드맵 자료를 2반 선생님이 정리하여 제시하였고, 또 다음 날 체계화된 PBL 차시별 계획을 3반 선생님께서 제시하였다. 그야말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집단지성'이라는 낱말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03 욕심 많았던 우리의 '첫 PBL 수업'

첫 PBL로 '어떻게 해야 우정을 쌓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실천에 옮길 수 있을까?'라는

PBL 활동 중에 '교사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림] 우정 PBL 브레인스토밍 자료



교류 PBL 산출물



탐구 질문 아래 [우정 컨설팅회사가 되어 우정 쌓기 프로그램 만들기]를 구성했다. 가장 투덜대던 학년이 가장 먼저 PBL을 시작했다는 모순과 다른 학년의 시샘 섞인 부러움 속에 4학년의 수업을 공개했다. 단순히 학생들의 산출물을 제시하는 결과 중심 공개수업이 아닌, PBL의 의미와 과정이 드러나는 살아있는 수업을 하고 싶었다. '우정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독서연계 교육연극수업(국어), '우정 쌓기 간식 만들기'를 통한 혼합물 분리수업(과학), '우정 쌓기 놀이'를 응용한 협력 놀이수업(체육)을 선보였다. 수업 그 자체로도, PBL의 내용에서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하지만 첫 PBL인지라 기대와 함께 욕심도 많았던 탓인지, 너무 많은 교과와 내용을 담아낸 것이 문제였다. 우리는 '학생들에게도 첫 PBL 경험이니 천천히 진행하자', '수업 중에 배우는 내용으로 산출물을 만들고 최종 발표 때 이를 정리하여 발표하면 쉬울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두 달이러는 긴 PBL 과정에 어려움을 느꼈다. 야심 찬 첫 PBL에 큰 기대를 품었던 우리는 PBL 활동에 최선을 다해 몰입하지 않는 학생들의 모습과 기대에 못 미치는 산출물에 아쉬움이 컸다. 반면 학생들은 자기 회사의 프로그램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았고 혹시 다음 PBL도 있는지, 언제 다음 PBL이 안내되는지, 주제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모습에 다시금 작은 희망을 품게 되었다.

04 수업이 변하니 아이들이 변하더라

두 번째 PBL은 좀 더 간결하게 해보기로 하였다.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서울에 대해 더

깊게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 아래 각 반에서 1주일 간 개별적인 PBL을 실시해보기로 했다. 1반은 미술과 연계한 [서울의 입체 지도 만들기], 2반은 국어와 연계한 [서울 홍보대사 되기], 3반도 국어와 연계했지만, 전혀 다른 내용의 [서울의 문제점 해결 공청회]로 진행하였다. 4반은 메이커수업과 연계한 [우리가 상상하는 서울 만들기]로 진행했다. 쉬는 시간 중 산출물이 전시된 복도에서 우리는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였다. 뛰어노느라 복잡했던 복도가 자연스럽게 산출물 발표공간으로 바뀐 것이다. 자신들의 산출물을 자랑하느라 신났던 학생들은 쉬는 시간이 끝나면 “다른 반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대요, 우리 반은 왜 그거 안 했어요? 다음에는 우리도 그렇게 해요.”라며 수업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또 다른 놀라운 모습을 선보였다. 선택의 힘, 자율의 힘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1학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 PBL은 총 3번, 각 PBL 운영 기간은 한 달 내외로 실시하기로 했다. 그리고 최종 산출물 발표 방식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켰다.

첫 번째 PBL은 ‘어떻게 해야 도시와 촌락에 대해 더 진지하게 탐구할 수 있을까?’라는 탐구 질문 아래 [마을 플래너가 되어 도시와 촌락 살리기]라는 주제였다. 학생들에게 PBL 내용, 일정표, 산출물 평가기준, 참고사항 등이 적힌 개별 안내문을 제공하였다. 흥미로웠던 것은 1학기와 다른 최종발표 방식(자신의 반이 아닌 다른 반으로 2모둠씩 이동)이 학급 내 협력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었던 요인이 되었다는 점이다. 우리 반이 다른 반에게 부족해 보이면 안 된다며,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중간발표 시 다른 모듬의 발표를 경청하고

다른 모듬의 활동에 도움을 주려 애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각 반에서 실시한 최종발표 후 기존의 반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법들(직접 만든 광고영상, 즉흥극으로 표현한 문제 상황, 이미지 중심의 깔끔한 PPT 구성,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협력해서 발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등)에 놀란 학생들은 다음 PBL에 대한 높은 도전의식을 보였다. 몇몇 학생들은 “체육 시간에 할 수 있는 운동경기를 변형해서 소개하는 PBL 어때요?”, “뚝딱누리에 가서 뭐 만드는 PBL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라며 자신들이 만들어 온 PBL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삶과 삶의 연결고리 찾기

4학년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PBL은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 배운 것을 자신의 삶과 연결 지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탐구 질문 아래 [연극으로 배우기 나누기]라는 주제로 정해졌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했다. 배움을 표현할 과목, 단원, 패러디할 내용(동화, 영화, 만화, 광고 등등), 등장인물의 수(단독 모듬 또는 모듬 간 협력), 표현 방법(마임, 역할극, 뮤지컬, 콩트 등등)과 같은 연극적인 부분을 구안할 수 있는 영역만 안내하고 나머지 부분은 학생들이 모두 토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 좀 더 질 높은 토의를 위해 모듬토의 협력학습지를 제공하자는 것과 학생들이 PBL 수업의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활동 중에는 평가기준과 내용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는 우리의 기대보다 효과적이었다. 협력학습지를 통해 모듬원 전체의 생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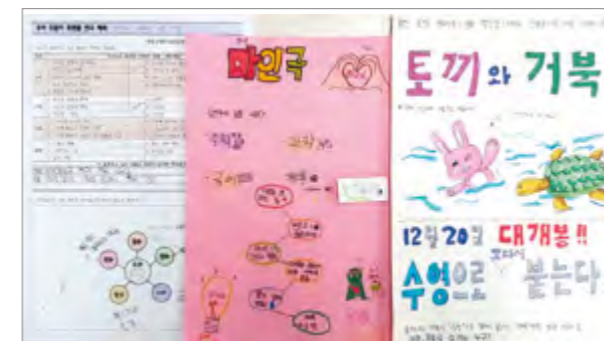
연극 PBL관람



끌어냈고, 학생들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기보다 서로 융합하여 더 발전된 의견을 만들었다. 가끔 모듬활동에 불성실하게 참여하는 학생도 게시된 평가내용을 보고 깜짝 놀라서 모듬활동에 다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망의 마지막 PBL 발표는 3시간에 가까운 긴 연극발표 시간이었다. 영화상영 시간보다 더 긴 발표시간을 학생들이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우리의 우려와는 달리 학생들은 집중하여 관람했다. 어쩌면 평가기준 중에 관람 태도도 평가에 들어간다는 점도 한몫했을 수도 있겠지만, 친구들의 연극 속에 표현된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 맞춰보고, 재치 있는 장면에서는 환호와 박수도 아낌없이 보내주며 실제처럼 연극을 관람했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당초 연극발표 후 바로 ‘질문과 칭찬 나누기 활동’을 계획하였는데, 학생들의 발표 욕구가 너무 높아서 이를 실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후회의를 통해 최종발표를 하루에 진행하는 것보다 2일에 나눠서 또는 4일에 나눠서 연극을 진행하였다면 ‘질문과 칭찬

연극 PBL 과정 산출물



나누기 활동’을 실시하고, 더 깊은 배움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결론을 맺었다.



아이들도 자라고, 선생님도 자란다

1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느낀 것은 학생들이 더 믿어주어도 된다는 점이었다. PBL 활동 중에 ‘교사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동료 선생님들도 더 믿어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성향의 차이, 능력의 차이,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우리의 부족한 점을 더 잘 매꿔줄 수 있었다. 그 어떤 의견도 경청하고 격려하는 1반 선생님. 제시된 의견을 모아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2반 선생님. 쉼 없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또 제공하는 3반 선생님. 기존과는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도록 시야를 넓혀준 4반 선생님. 각각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주었기에 ‘PBL 기반의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첫 경험을 재미있으면서도 의미 있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를 믿어야 한다는 점이다. 도전하고 싶지만 나를 믿지 못해서 시도해보지 못한 것 중 하나가 PBL이었다. 2019년이 시작될 때에는 너무나 두려웠던 PBL이었지만, 이제는 PBL 홍보대사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PBL의 매력에 풍당 빠지게 된 나를 발견한다.

2020년이 시작되는 지금, 올해는 또 누구와 함께, 또 무엇을 통해 자라게 될지 기대해본다. ②

[중학교 교사의 눈으로 보는 수업-평가]

배움의 속도 고려한 수업과 밀착된 평가 학생 성장 이끈다

01

소리없이 배움에서 멀어지는 아이들 없는 교실

“선생님! 이거 배워서 어디에 써요?”
한참 용해도 곡선을 해석하여 문제 풀

이를 하고 있는데 학생이 던진 말이다. 이 아이의 삶에는 과학 시간에 배우는 물질의 용해도가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개념이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 그럴 때마다 고등학교에 가면 더 어렵던가, 대학 입시를 핑계대며 아이에게 설득이 아닌, 겁을 줬던 것 같다. 나 또한 학창시절에 그렇게 배웠으니까.

“선생님, 용해도 곡선에서 온도가 낮아지면 석출되는 양 구하는 문제 나와요?”

또 한편으로 만나는 아이들이다. 학원에서, 문제집에서 학년 수준을 넘어선 문제들을 들고 와서 불안한 눈빛으로 묻는다. 어느 깊이까지 공부해야 하는지를 묻는 아이들의 동공이 흔들리다가 ‘수업 시간에 했어?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만 출제할거야?’라는 말에도 믿을 수 없다는 불안한 눈빛이다. 참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다양한 30명의 아이들을 한 공간에서 같은 수준, 같은 속도로 가르칠 수 있을까? 스펙트럼이 넓은 아이들을 대하는 교사는 결국 어떤 아이들을 기준으로 맞추게 될까? 대답을 잘하는 소수의 아이들을 보고 모든 아이들이 배웠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 아이들만 보고 싶은 것인지. 소리없이 배움에서 멀어져 가는 아이들은 비단 시스템만의 문제로 탓할 수 없을 것이다. 이 현실에서 교사의 노력과 현장의 실천이 더없이 필요했다. 모든 아이들이 배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제도 변화와 노력을 기해야 하는 이유, 바

로 ‘공교육’이기 때문이다.

02

내 수업이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배워야 하는지, 어느 수준까지 배워야 하는지’ 그동안 아이들이 끊임없이

궁금해했던 질문에 나 스스로도 마땅한 답을 얻지 못했다. 그러다가 일체화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교육과정 한번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졌다. 과학과의 목표와 수업을 통해 길러줘야 할 역량을 확인하면서 과연 내 수업은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찰하게 되었고 교육과정 분석에서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수업으로의 디자인, 그리고 그 수업이 충실하게 반영되는 평가를 계획하게 되었다. 이렇게 한 학기를 계획하기까지는 교사의 교육철학과 학생관, 교과에 대한 철학 등 치열한 고민이 밑바탕이 되어야 했다. 그렇지 않고 누군가의 예시로 접근하게 되면 도중에 신념이 흔들리고 끝까지 밀고 나갈 원동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교육과정 속 과학의 목표를 통해 어떤 아이들로 성장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했고, 성취기준을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수업이 드러나게 하였으며, 실제 수업은 학생이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배움의 속도를 고려하여 디자인하였다.

그리고 가장 변화가 더딘 견고한 평가. 가능한 수업과 밀착된 평가를 하되 학생 피드백을 통해 아이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렇게 교육과정 분석에서 성취기준에 맞게

[표1] 중1 과학 한 학기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

월	기본 성취기준	성취기준 재구조화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학습경험 (어떻게 배울 것인가?)	평가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단원
3 ~ 4	<p>[9과01-01]지구계의 구성 요소를 알고, 지권의 층상 구조와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p> <p>[9과01-02]지각을 이루는 암석을 생성 과정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암석의 순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p> <p>[9과01-03]조암 광물의 주요 특성을 관찰하고, 암석이 다양한 광물로 구성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p> <p>[9과01-04]풍화 과정을 이해하고, 토양 생성 과정을 풍화 작용의 예로 설명할 수 있다.</p> <p>[9과01-05]대륙이동설을 이해하고 지진과 화산이 발생하는 지역의 분포를 판의 경계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p>	<p>*지구계 구성요소를 알고 지권의 층상 구조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p> <p>*암석을 생성 과정에 따라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암석이 순환됨을 이해할 수 있다.</p> <p>*조암 광물의 색, 조흔색, 자성, 염산반응, 굳기를 관찰하여 특성을 이해하고 암석을 구성하는 알갱이가 광물임을 설명할 수 있다.</p> <p>*풍화 과정을 이해하고 풍화 실험을 설계하여 토양이 생성되는 과정을 기계적, 화학적 풍화 작용의 예로 설명할 수 있다.</p> <p>*대륙이동설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고 지진과 화산 발생이 판의 경계와 관련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p>	<p>*모듬별 지구계 소개 사진촬영 미션으로 구성요소 이해, 지권의 깊이 따른 비율 계산을 통한 작도로 각 층의 두께를 짐작하며 상태 특징을 정리</p> <p>*생성 과정 영상을 통해 다양한 암석이 형성됨을 이해하고 암석 표본 관찰과 학교 내 암석 관찰을 통해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 분류. 또한 암석의 순환 영상을 통해 이해 촉진</p> <p>*조암 광물 표본을 이용하여 색, 조흔색, 자성, 염산반응, 굳기를 비교 관찰, 돋보기로 암석 알갱이 관찰하고 사시 정리</p> <p>*연역적 탐구 설계의 기초(각설탕, 가루설탕 실험설계)를 익히고 삼각플라스틱, 분필, 식초, 풍선을 주어 풍화를 비교하는 실험을 설계</p> <p>*대륙이동설의 근거 4가지를 발표와 반론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고 대륙판 조각 퍼즐을 완성하여 대륙이 하나였음을 확인, 지진대와 화산대를 실제 자료를 통해 판의 경계에서 지권의 운동이 일어남을 확인</p>	<p>*지구계 구성요소를 정리하고 지권의 층상구조와 특징을 글로 설명할 수 있는가? (수업참여도)</p> <p>*암석을 생성 과정에 따라 구분할 수 있고, 대표적인 암석을 말할 수 있는가? 암석의 순환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가? (수업참여도)</p> <p>*조암 광물의 자성, 염산반응, 굳기를 비교할 수 있고 암석이 다양한 광물로 구성됨을 설명할 수 있는가? (수업참여도)</p> <p>*주어진 준비물로 풍화실험을 설계하고 실행하여 결과를 정리해낼 수 있는가? 부족한 경우 피드백을 통해 다시 수정할 수 있는가? (실험 및 보고서 작성)</p> <p>*대륙이동설의 근거 4가지를 발표와 반론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고 대륙판 조각 퍼즐을 완성하여 대륙이 하나였음을 확인, 지진대와 화산대를 실제 자료를 통해 판의 경계에서 지권의 운동이 일어남을 확인</p>	I 지권의 변화
5 ~ 6	<p>[9과02-01]무게가 중력의 크기임을 알고, 질량과 무게를 구별할 수 있다.</p> <p>[9과02-02]일상생활에서 물체의 탄성을 이용하는 예를 조사하고, 그 예를 통하여 탄성력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p> <p>[9과02-03]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원인으로 마찰력을 알고, 빗면 실험을 통해 마찰력의 크기를 정성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p> <p>[9과02-04]기체나 액체 속에 있는 물체에 부력이 작용함을 알고 용수철저울을 사용하여 부력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p>	<p>*일상 생활 속 중력, 탄성력, 마찰력, 부력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힘을 나타내는 현상을 재현할 수 있다.</p> <p>*무게가 중력의 크기임을 알고, 질량과 무게를 구별할 수 있다.</p> <p>*물체의 무게와 마찰력의 관계를 이해하고 빗면의 기울기와 마찰력의 관계를 확인하는 실험을 설계, 수행할 수 있다.</p> <p>*기체속의 부력을 확인하고, 액체속의 부력을 용수철저울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p>	<p>*모듬별로 힘을 선택하고 유튜브 동영상, 일상생활 속 예시, 개념정리를 스스로 조사(핸드폰, 와이파이가)하고 현상을 재현하는 발표, 질문</p> <p>*용수철 저울 측정을 통해 무게와 질량의 차이점을 토의</p> <p>*용수철과 나무도막을 이용하여 물체의 무게와 마찰력 관계 확인 실험, 빗면의 기울기, 접촉면의 재질에 따른 실험을 설계하고 이를 확인하는 실험 진행, 그 후 결과 보고서 작성, 피드백 후 수정 기회 제공</p> <p>*헬륨풍선을 이용하여 기체속의 부력을 확인, 액체속의 부력을 측정하는 실험을 통해 부력의 개념 정리</p>	<p>*일상 생활 속 힘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현상을 재현할 수 있는가? (수업참여도)</p> <p>*무게가 중력의 크기임을 알고 질량과 무게를 구별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 (수업참여도)</p> <p>*물체의 무게와 마찰력의 관계를 이해하고 빗면의 기울기와 마찰력의 관계를 확인하는 실험을 설계, 수행할 수 있는가? 부족한 경우 피드백을 통해 다시 수정할 수 있는가? (실험 및 보고서 작성)</p> <p>*기체속의 부력과 액체속의 부력을 설명하고 액체속의 부력을 측정할 수 있는가? (수업 참여도)</p>	II 여러 가지 힘

가장 변화가 더딘 견고한 평가. 가능한 수업과 밀착된 평가를 하되
학생 피드백을 통해 아이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수업을 디자인하고 이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체화가 되었고 교사의 전문성 성장이 교과서 전달자에서 교육과정 해석자, 수업 기획자, 학생 배움 촉진자로의 역할 변화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03

평가, 선별의 잣대가 아닌 재도전의 기회로

일체화를 시도하고 난 후,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의 배움 참여 및 주도성 성장 및

수업 만족도 향상이다. 그리고 과정이 중심되는 평가는 평소 배움에 충실한 아이들에게 더 공정한 평가가 되었고, 배움이 느린 아이들을 고려한 수업 디자인은 서로 편하게 물을 수 있는 교실 환경 조성과 함께, 협력하여 배우는 관계를 성장시켰다.

또한, 중1 수행평가에서 피드백을 통해 아이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평가가 아이들을 선별하는 잣대가 아니라, 배움을 확인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중학교 전체로 확장되어야 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이는 필자가 작년까지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직할 당시, 고등학교에 올라온 아이들의 상당수가 중학교 교육과정에 결손이 있는 상태로 진급되었다는 사실에 문제의식을 느꼈던 것과 연관된다.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으면,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어야 하는데 중학교 3년의 과정이 그럴 힘을 키워줄 수 있는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래서 초·중·고 교육과정을 연계해서 보기 시작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어떤 내용을 학습하고 올라왔는지 확인하니 중학교 개념을 접근하는 수준과 방식이 결정되었고,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확대하니 배움의 깊이를 결정할 수 있었다. 비로소 학교급 간의 연계를 통해 좀 더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들에 맞는 수업을 고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것은 고스란히 아이들의 긍정적 피드백으로 강화되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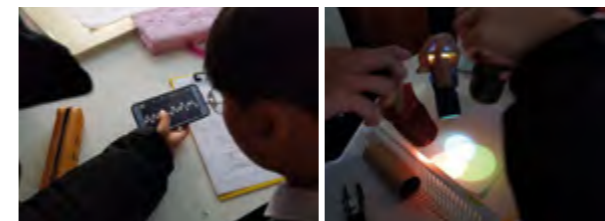
[표2] 과학적 역량을 성장시키는 수업과 피드백을 통한 수정 평가

교육과정	[9과02-03]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원인으로 써 마찰력을 알고, 빗면 실험을 통해 마찰력의 크기를 정성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수업	마찰력을 확인하는 실험을 설계하고 직접 실험한 후 결과 분석 및 정리를 피드백 받아 수정함.
수정평가	마찰력을 결정하는 조건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설계, 실제 수행하였으며 다양한 가설에 따른 결과를 비교해 봄. 특히 결과 분석 과정에서 피드백을 통해 결과를 표와 그래프로 정리하는 능력이 성장함.



[표3] 아이들에게 주도권을 넘긴 수업과 그와 연결된 관찰 평가

교육과정	[9과06-02] 물체의 색이 빛의 삼원색으로 합성됨을 관찰하고, 영상 장치에서 색이 표현되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9과06-03] 여러 가지 거울과 렌즈를 통해 나타나는 상을 관찰하여 상의 특징을 비교하고, 평면거울에서 상이 생기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9과06-04] 파동의 종류를 횡파와 종파로 구분하고, 소리의 특징을 진폭, 진동수, 파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수업	제시된 8개의 주제를 모두가 선택하여 스스로 개념을 학습하고 개념 이해를 돕는 실험을 준비하여 체험시킴. 지식시장 수업형태를 활용하여 7명의 설명을 진행하고 친구들에게 개념 확인 퀴즈를 제시하여 이해를 도움. 설명 이해도를 판정하는 동료 평가를 진행함.
관찰평가	빛과 파동 지식시장 수업에서 소리를 주제로 선택하여 소리의 3요소와 파형 분석을 모두가 힘을 합쳐 학습함. 리코더, 장난감 건반을 준비하여 어플 '오실로스코프'를 활용하여 소리의 세기, 높낮이, 음색을 시각화하여 보여줌. 특히 소리의 세기와 진폭, 소리의 높낮이와 진동수를 명확히 설명해 내는 모습이 동료들로부터 인정받음.



[표4] 과학의 본성에 충실한 수업과 열린 평가

교육과정	[9과03-01] 생물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변이의 관점에서 환경과 생물다양성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9과03-02] 생물 종의 개념과 분류 체계를 이해하고 생물을 계 수준에서 분류할 수 있다.
수업	모둠별로 학교 운동장 주변 식물 잎 50개를 채집하여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작품 게시
수업	
열린평가	학교 주변 식물의 다양한 잎 50개를 모두가 협력하여 채집한 후,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을 협의하면서 분류해봄. 특히 개념도 형태로 완성하면서 잎 모양, 줄기, 잎맥, 색 등 다양한 관찰을 통해 분류하고 각 단계에 적합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모습이 인상적임.

[고등학교 교사의 눈으로 보는 수업-평가-기록]

교실 수업 속에서 이뤄지는 평가 학생 성장 관찰·피드백 가능

01 학생이 성장하는 수업을 상상하다

‘모든 학생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듣고 말하고 글을 쓰는 역량을 재미있게 키워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의 시간이 가장 긴 지점은 역시 성취기준 재구조화 단계이다. 내가 만난 아이들 수준에 맞는 한 학기 수업 목표지점이 어디이며, 목표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과 과정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성장하는 학기가 될 수도 있고 힘든 학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학기 전체를 맥락적으로 이어가면서 학생의 성장을 지향하는 수업, 이를테면 단기간에 최고의 결과를 내는 수업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배움이 평생 어떤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업은 교사의 고민과 상상력이 필요하다.

02 피드백 후 성장한 지점을 평가에 반영하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글쓰기나 말하기를 어려워한다. 역량도 제각각이다. 자신이 작성한 글에 대해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으며 지속적인 성장의 기회를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에는 예민해지고 성장은 나중 일이 된다. 설상가상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를 영상이나 스마트 폰으로 해결하는 아이들은 긴 글을 읽거나 논리적 글쓰기 활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실용국어는 2학년 아이들의 선택과목으로 2019년에는 등급까지 산출해야 하는 과목이었다. 직업 분야에서 직무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실용적인 국어 사용 능력을 기르는 과목으로 ①직업 분야에서의 직무 수행을 위한 국어 사용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②직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국어 사용 능력을 기르며, ③다양한 직무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태도를 기르는 과목이다. 1학기에 직무 어휘와 어법에 비중을 두었다면 2학기에는 듣기·말하기와 글쓰기를 통한 표현하기에 조금 더 무게를 두었다. 특히 글쓰기는 꾸준하게 반복하는 과정에서 느리게 성장한다.

수업의 주도권이 점진적으로 학생에게 이동해 가는 수업,

수업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치러지는 평가, 학생 성장을 위한 관찰과 피드백이 가능한 수업은 배움의 본질에 다가가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하다.

1학기 첫 시간에 간단한 글쓰기 평가를 해 보았다. 글쓰기 후 한 명 한 명 피드백하고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오류나 부족한 부분을 중점으로 수업을 진행한 뒤 한 학기가 끝날 즈음 똑같은 활동지로 다시 글쓰기를 해 보았다. 기대가 컸던 탓인지 실망도 컸다. 학기 초에 비해 글쓰기가 많이 좋아졌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생각만큼 나아지지 않았다. 2학기 수업을 하면서 피드백을 더 강화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가능하면 수업 중에, 개별적으로, 글쓰기 단계별 구체적인 피드백이 되도록 할 것과 피드백 받은 내용을 개선하고 익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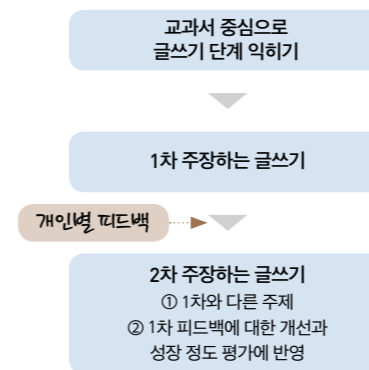
학교 공간 변화에 관심이 많은 동아리 선생님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민주적 관점으로 학교 공간 읽기’를 1차 주장하는 글쓰기로 정했다. 학생들에게 익숙한 학교 공간을 ‘민주적 관점’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학교를 읽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였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글쓰기 단계별 방법을 익힌 다음 1차 주장하는 글쓰기를 실시하였다. 1차 글쓰기 이후 개인별 피드백을 한 후 피드백 내용을 중심으로 고쳐 쓰기를 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2차 주장하는 글쓰기는 1차와 주제를 달리하고, 1차 피드백 항목에 대한 개선과 성장의 정도를 2차 글쓰기 평가에 반영하였다<[그림] 참조>.

‘피드백 개선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어 점수 반영을 최소화하고 개인별 피드백 내용 중 개선된 사항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만 최하 점수를 주도록 하였다.

어떤 형태로든 평가는 학생들에게 부담이다. “선생님, 그냥 한 방에 망하는 것이 나아요!” 하며 평가에 대한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학생도 있다. 과정 중심 평가에서 교사의 피드백은 학생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도움을 주는 동시에 교사의 수업 방향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일이다. 주장하는 글쓰기에서 단계별(개요 작성하기, 문단쓰기, 초고쓰기 등) 과정은 평가에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피드백과 충분한 연습이 평가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글쓰기 자신감을 키웠다고 생각한다.

[그림] 과정 중심 평가 사례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나 만족도는 1학기 때보다 훨씬 좋았다. 수업 속에서 다뤄진 주제가 학교 공간 개선 사업으로 이어지는 신선한 경험도 했다. ‘홈베이스 온돌마루 설치, 코인 노래방 설치, 운동장 그네 설치, 구령대 폐지’ 등 학생들이 제안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여 공간을 개선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표1] 성취기준 및 평가계획

교육과정 성취기준	[12실국01-02]국어의 어법에 맞고 의미가 정확한 문장을 사용한다. [12실국03-01]타당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표현한다. [12실국05-02]독서와 글쓰기를 통하여 자신을 성찰하고 교양을 함양한다.									
평가	주장하는 글쓰기와 주장하는 말하기(55점)									
	주장하는 글쓰기 1차(20점)			주장하는 글쓰기 2차(20점)			주장하는 말하기(15점)			
	표현의 적절성	주장의 논리성	근거의 충분성	표현의 적절성	주장의 논리성	근거의 충분성	피드백 개선	조건	논리성	태도
	4	8	8	4	7	7	2	7	6	2

[표2] 학생 피드백을 통한 과정 중심 평가

	1차 주장하는 글쓰기	2차 주장하는 글쓰기	3차 주장하는 말하기
학생 피드백	<p>이제 생긴 작은 공간도 최대한 공간 활용을 시켜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작은 공간이라도 최대한 활용을 시켜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작은 공간이라도 최대한 활용을 시켜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p>	<p>이제 생긴 작은 공간도 최대한 공간 활용을 시켜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작은 공간이라도 최대한 활용을 시켜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p>	<p>이제 생긴 작은 공간도 최대한 공간 활용을 시켜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작은 공간이라도 최대한 활용을 시켜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p>
	<p>이제 생긴 작은 공간도 최대한 공간 활용을 시켜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작은 공간이라도 최대한 활용을 시켜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p>	<p>이제 생긴 작은 공간도 최대한 공간 활용을 시켜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작은 공간이라도 최대한 활용을 시켜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p>	<p>이제 생긴 작은 공간도 최대한 공간 활용을 시켜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작은 공간이라도 최대한 활용을 시켜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p>

[표3] 실용국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사례)

학생 수업 활동 기록	<p>‘민주적 관점으로 공간 읽기’에 관한 1차 주장하는 글쓰기에서 학생 휴게 공간의 필요성, 접근성의 용이, 공간 효율성 등을 강조하며 ‘옥상 정원 만들기 및 학생 휴게를 위한 테라스’ 설치를 주장하였음. 2차 주장하는 글쓰기에서는 정시 확대 정책에 대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객관식 평가가 적합하지 않으며, 수시로 가는 학생들의 학교 만족도 및 학업 성실성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음. 1차 주장하는 글쓰기에서 문단 나누기, 중복 내용 삭제, 주어진 조건과 주제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것 등의 피드백을 받고 고쳐 쓰기를 통해 개선하려고 노력한 결과 2차 글쓰기에서는 한층 발전되고 완성된 과제를 수행하였음. ‘주장하는 말하기’에서 외워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어 중심으로 내용을 구조화하고 비-반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구사하며 자신감 있는 태도로 말해 좋은 평을 받았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질문하며 성장하려는 인내와 끈기가 있음.</p>
-------------	---



03 수업의 본질을 고민하는 교사

2019년 2학기 ‘실용국어’와 ‘독서’ 두 과목을 가르쳤는데, 역시 쉽지 않은 한 해였다. 수업과 평가에 대한 부담도 2배로 늘어났다. 진도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어떤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분명 당연한 일임에도 용기가 필요하다. 동료 교사의 협력도 필요하다. ‘하던 대로’에서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를 고민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배움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수업의 주도권이 점진적으로 학생에게 이동해 가는 수업, 수업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치러지는 평가, 학생 성장을 위한 관찰과 피드백이 가능한 수업은 배움의 본질에 다가가는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하다. 또 개별 학생마다 배움의 속도와 방법이 다를 수 있고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상대평가를 통한 석차나 등급을 산출해야 하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땅히 교육 제도의 변화, 교육 환경의 개선도 따라주어야 하겠지만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어떤 역량을 키워 줄 것인지를 고민하며 자신만의 수업을 상상해야 한다.

변화는 저항을 동반한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에서 오는 어설피움을 껴안으며 처음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성숙은 더디고 실패 구간에서의 불안함은 ‘하던 대로’의 유혹을 불러온다. 그러나 그 불안함의 힘든 구간을 지나야 나도 학생도 성장한다. 학교에서의 배움이 성적과 등급을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 학년에서 다음 학년으로, 학생의 현재 삶의 공간으로, 학교 밖 생활 속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㉔

과정 중심 평가의 의미와 교사 역량 강화 방안

최근 변화하고 있는 사회 환경은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릴 정도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능력도 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 사회에 적합한 인재상을 예측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2000년대 이후 수행된 OECD의 DeSeCo project, ATC21S project 등을 비롯한 많은 연구에서 미래 시민으로서 핵심 역량(Key competency)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 지식 중심 사회에서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원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알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지식과 정보를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하여 주어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

학습을 위한 평가, 학습으로서의 평가

이와 같은 지식과 역량의 복합적인 신장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수·학습 및 평가 전략이 필요하다. 즉, 학생들의 역량을 지속해서 신장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교수·학습 과정에서 역량의 신장 여부를 적시에 점검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학생평가의 패러다임이 학습 결과의 평가(Assessment of learning)를 통해 학생의 성취에 관한 판단의 근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에서 학습을 위한 평가(Assessment for learning), 학습으로서의 평가(Assessment as learning)를 통해 학생의 성장 과정과 교사의 수업 방법 개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도 이러한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평가는 교사들이 개별 학생의 성취 특성을 가장 근거리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의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교수·학습이 끝나는 시점에 결과에 대한 평가만 이루어지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적 산출을 위해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일회성으로 실시되던 과거의 평가 방식만으로는 시대적인 변화에 적용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과거의 학생의 성장 과정에서의 진단과 피드백이 결여된 결과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학교 교육을 내실화하고자

교사의 계획하에 실행되는 학생평가 전반

과정 중심 평가가 도입되었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을 활용한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강조하고, 학생들의 지식과 역량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강조점들이 실효성을 갖게 하려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고, 학습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2017).

과정 중심 평가는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기반으로 수업과 평가를 연계한 평가 계획에 따라, 교수·학습 과정에서 보이는 학생의 특성과 변화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이다(박지현 외, 2018). 즉, 과정 중심 평가는 학교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학생평가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평가체제를 제안하는 것이기보다는 교사의 계획하에 실행되는 학생평가 전반에 걸친 질적 개선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결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기존의 학생평가 방식을 학습 과정과 결과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 본연의 목적을 되살리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정 중심 평가는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도와주기 위하여 평가의 ‘결과’만을 고려하기보다 ‘과정’에 초점을 둔다. 학생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학생의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실시된 평가라면 과정 중심 평가의 취지에 맞게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기존에 학교 현장에서 학생평가를 위해 활용되어온 다양한 평가방법들이 학생의 학습 과정을 살펴보고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실시 된다면 과정 중심 평가가 될 수 있다.

교수·학습과 평가의 유기적인 관계

또한, 과정 중심 평가를 위해서는 교수·학습과 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즉, 기존에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평가하여 결과를 확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교수·학습과 평가 계획이 동시에 수립되고, 교수·학습 과정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결과의 신뢰도는 교사의 평가 전문성이 갖추어져 있다는 전제하에 확보될 수 있다. 과정 중심 평가를 위해서는 교사에 의해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 계획 수립, 평가 도구 개발 및 채점 기준 마련, 평가 시행 및 피드백 제공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각 단계에서

과정 중심 평가는 단위학교의 교사협의회를 중심으로

학교 실정에 적합한 운영 방안이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하므로

학교 수준에서의 교사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교사의 평가 전문성 확보가 중요

더욱 높은 교사의 평가 전문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 교사들의 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정 중심 평가 지원을 위한 안내 자료 및 평가 사례 보급, 학생평가지원포털(http://stassess.kice.re.kr) 운영 등을 통해 교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과정 중심 평가는 단위학교의 교사협의회를 중심으로 학교 실정에 적합한 운영 방안이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하므로 학교 수준에서의 교사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과정 중심 평가가 학교 현장에 확대·적용되면서 교사별 평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기에 교사의 평가 전문성 확보가 점점 더 중요하다. 교사별 평가는 교사별로 가르치는 방법과 내용이 다르고 배우는 학생의 특성이 다르다. 때문에 그에 따른 평가도 달라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이다. 과정 중심 평가는 배운 내용에 대한 평가, 학생 개인의 발달상황을 고려한 학습 과정에 대한 평가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과정 중심 평가를 위해 교사별 평가를 운영하기도 한다.

교사별 평가는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급에 대해 평가 계획에서부터 문항 개발, 평가 시행, 피드백 및 결과 산출, 기록까지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반재천 외, 2018), 학년(교과) 교사들이 함께 평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년별(교과별) 평가와 비교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별 평가를 통해서 개별교사는 평가의 자율권을 획득하고, 교수·학습 방법, 학생 특성, 학급 상황 등에 따라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 맞춤형 평가를 할 수 있다(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8).

과정 중심 평가를 교사별로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수·학습을 통한 도달 목표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과정 중심 평가가 교사별로 설계될 경우, 개별교사에 의해 계획된 평가는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취기준을 달성했는지를 파악하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동학년(동교과) 교사 또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협의와 상호 검토 과정을 거쳐서 개별교사가 설계

국가 수준, 학교 수준의 지속적 지원 필요

한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과정 중심 평가는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적합하도록 학생평가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학생평가를 새로운 환경 및 학생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개선하고, 학생평가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정책적으로 과정 중심 평가가 강조되면서, 과정 중심 평가가 학교 수준 학생평가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현시점에서 그 도입 취지와 역할을 명확히 안내하고, 학교 현장의 과정 중심 평가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단위학교에서 과정 중심 평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함으로써, 교수·학습 과정에서 과정 중심 평가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 수준 및 학교 수준의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교사가 학생의 성장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국가 수준 및 학교 수준에서 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생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이 미래 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해서, 현재 학습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고 더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존에 ‘평가’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던 무게와 부담을 줄이고 과정 중심 평가가 학교 현장에 정착한다면, 학생평가가 학생들의 옆자리에서 학생들이 자라나는 것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본연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②

참고문헌

교육부(201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7-131호[별책 1].
 박지현, 김수진, 진경애, 이상아(2018). 과정 중심 평가의 개념 및 운영 요인. 수록처: 과정 중심 평가 내실화 방안 탐색 연구자료(ORM 2018-49).(pp. 19-4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반재천, 김선, 박정, 김희경, 이해선(2018).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사별 과정중심평가 활성화를 위한 학생평가 모형 개발 연구. 교육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세계 속 한류 이끌 전통예술 인재 기른다



1



2



3

123 2019학년도 제2회 국립전통예고 한국음악과 발표회 현장. 국악 관현악(사진 1), 판소리(사진 2), 가야금 병창(사진 3) 등 우리 음악의 향연이 펼쳐졌다.

“얼썬! 잘한다.” “얼씨구!”

객석에서 터져 나오는 환호 소리가 공간을 가득 메운다. 무대 위에선 우리 음악의 향연이 펼쳐진다. 웅장함이 느껴지는 국악 관현악 협주부터 구성진 판소리, 신명 나는 타악 연희까지. 눈과 귀를 땔 수 없는 공연으로 한 시간이 팍 채워졌다. 감탄이 절로 나오는 수준급의 공연이지만, 무대의 주인공은 아직 앓던 학생들이다.

지난해 12월 20일,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교장 왕기철) 향사기념관에서 2019학년도 제2회 한국음악과 발표회가 펼쳐졌다. 이 학교 2학년 한국음악과 학생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그동안의 갈고닦은 솜씨를 뽐내는 자리다. 한국음악과에는 가야금, 거문고, 해금, 대금, 피리, 아쟁, 판소

리, 민요, 병창, 정가, 타악(장단·연희), 작곡과 이론 등 다양한 세부 전공이 있다.

국악 관현악 ‘신벚놀이’ 연주로 힘차게 시작된 공연은 단숨에 객석을 집중시켰다. 여기에 해금 협연자로 나선 고은비 학생이 애절한 음색과 극적인 속도 변화로 화려한 기교를 선보였다. “새가 날아든다”로 시작하는 익숙한 판소리 새타령이 흥을 돋우고, 자유로운 율동이 더해진 퓨전 스타일 정가를 선보인 오지운, 조남훈 학생의 무대도 호응을 이끌었다. 피날레는 타악연희 전공생들의 ‘판굿’. 장구, 팽과리, 징 등 신명 나는 타악 소리에 상모를 돌리며 넘어질 듯 빙글빙글 무대 위를 도는 퍼포먼스까지 더해져 객석은 환호로 가득 찼다.

교내외 공연 통해 다양한 무대 경험

이날 무대를 오롯이 완성한 국립전통예고 학생들은 이처럼 1년에 두 번 있는 전공 발표회 이외에도 매년 펼쳐지는 학교의 대표 예술제인 ‘민족예술대제전’ 등 교내외 여러 공연을 통해 무대에 서는 경험을 가진다. 덕분에 프로 못지않은 예술인의 면모를 자랑한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국립전통예고는 우리 전통 예술을 지키고 계승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60년 설립돼 올해로 개교 60주년을 맞았다. 국악예술학교로 시작해 한국국악예술학교,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등 여러 번 이름을 바꾼 학교는 지난 2008년 사립에서 국립으로 전환되면서 지금의 교명으로 변경됐다.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교육기관으로 전교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대금이 국비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고2·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지원비와 급식비도 지원된다.

전통예술을 가르치는 고등학교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두 곳, 국립전통예고와 국립국악고가 꼽힌다. 왕기철 국립전통예고 교장은 “국립국악고가 궁중음악을 중심으로 다룬다면, 우리 학교는 민간에서 이뤄졌던 국민들의 예술을 중심으로 교육한다는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음악과·무용과·음악연극과 등 전통예술 총집합

국립전통예고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음악연극과를 포함해 한국음악과, 무용과 등 3개 과가 있다는 것이다.

- 4 학교에는 야외공연장이 있어 이곳에서 학생들이 무대 기회를 가진다.
- 5 교내 동아리 '아리랑 예술단' 학생들은 지난해 미국 워싱턴DC 제퍼슨 광장에서 한국음악과 전통무용 공연을 펼쳤다.



음악연극과는 지난 2000년 국내 고등학교 과정에서 최초로 신설된 학과다. 음악연극, 즉 뮤지컬을 우리나라 말로 풀이한 것처럼 연극과 뮤지컬의 전반적인 이론과 기초, 전공 실기를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이외에 무용, 성악, 판소리 등도 함께 배운다. 전통예술과 현대예술을 융합하는 교육이 이뤄지는 셈이다.

무용과에서도 일주일에 4시간의 창작무용과 2시간의 전통무용 전문교과 수업 이외에 현대무용, 발레 수업은 물론, 장구와 소리를 배우는 시간도 따로 있다.

왕 교장은 “기본적으로 과에 상관없이 발성, 타악, 무용, 악보 보는 법 등을 전부 가르치며 종합예술인을 양성한다.”라며 “무용 전공 학생들이 박자를 알고 장단을 알면 춤을 더 잘 출 수 있듯이, 세 과가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음악과는 박현봉, 박귀희, 김소희 등 당대의 명인·명창이 설립한 학교인 만큼 본교 대표 학과로 꼽힌다. 현재 현장에서도 판소리 이옥천 명창 등 무형문화재 보유 교사

가 직접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전공 시간에는 산조, 정악, 창작 음악 등을 다양하게 교육하며 학생들이 전통음악의 저변을 넓히도록 한다.

아리랑 예술단·두레소리 등 대내외 유명 동아리 운영

학교에는 야외공연장과 학생들의 연습 공간이자 전공 수업이 이뤄지는 예술관 두 곳, 인문관, 기숙사를 갖추고 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예술관은 저녁 10시까지 개방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제2예술관은 지난 2015년 준공돼 학생들이 한층 여유롭게 수업을 듣고 연습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정규수업 이외에 방과후 수업과 동아리, 특강 등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특히 교내 상설동아리 ‘아리랑 예술단’ 학생들은 문체부와 교육 관련 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해 다양한 공연 기회를 맞는다. 지난해에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미국 워싱턴DC의 존 에프 케네디 센터와 제퍼슨 광장에서

다채로운 한국음악과 전통무용 공연을 펼쳤다. 김혜민 학생은 “현지 교민들에게 우리의 전통음악을 오랜만에 들려드린 기회여서 무척 뜻깊었다.”라고 회상했다.

국악 합창 동아리 ‘두레소리’는 지난 2012년 개봉한 동명의 영화로도 유명하다. 영화 ‘두레소리’는 국립전통예고의 동아리 ‘두레소리’의 창단 실화를 배경으로 한다. 함께 하는 소리, 즉 합창의 우리말 표현인 ‘두레소리’는 대중적으로 풀어낸 국악으로 소통의 메시지를 던진다. 교내외 공연과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을 통해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부원인 이진혜 학생은 “국악 합창이다 보니 한국음악과만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에 상관없이 노래를 좋아한다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라며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세계 속 한류화 앞장서는 예술 인재 육성”

학교는 지난해 금천구청, 금천문화재단과 지역문화 예술 발전 및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는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 지역축제 콘텐츠 개발, 지역 신진예술가 육성 등에 더욱 활발히 참여할 예정이다.

개교 이후 1만2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국립전통예고는 민족예술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수많은 인재를 길러내며 우리나라 전통예술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왕기철 교장의 목표는 이제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것에서 나아가 세계 속의 한류에 앞장서는 예술 인재를 키우는 것이다. 그는 “아이들이 막연하게 꾸는 꿈도 이 학교를 통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이끌고 싶다.”라고 전했다. ②



MINI INTERVIEW



왕기철 교장

지난 2017년 부임한 왕기철 교장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19회 졸업생으로 모교에서 교장이 됐다. 그는 학교 설립자인 박귀희 명창의 제자로, 스승을 따라 국악에 입문해 소리를 시작했다. 판소리 명창인 왕 교장은 현재도 교육 활동과 함께 무대에서는 것을 병행한다. 그는 “스승이 설립한 학교를 졸업하고, 그 학교에 다시 돌아와 교장으로 부임했다는 자부심이 있다.”라고 말했다.

왕 교장이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힘쓴 것 중 하나는 바로 교직원 총원이다. 전문교과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의 진로 고민까지 상담해줄 전임교사가 부족하다는 점이 그의 오랜 고민이었다. 그는 “현재 전문교과 담당 교사는 17명인데, 올해는 전문 기량을 가진 정교사 8명을 추가로 확보했다.”라며 “앞으로 훌륭한 교육철학을 가진 선생님들을 모셔와서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개교 60주년을 맞은 국립전통예고는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학교의 대표 예술제인 ‘민족예술대제전’이 오는 6월 2일부터 나흘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리는 것. 그는 “음악, 무용, 연극까지 전통예술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공연에 전교생이 참여하게 되며, 그중 하루는 명인·명창 동문 선배들이 공연을 펼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또, “학교의 60년사를 담은 책을 편찬 중이기도 하다.”라고 전했다.

왕 교장은 예술과 교육은 떨어질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는 “예술을 진로로 선택하지 않은 일반 학생들에게도 예술교육은 필요하다.”라며 “예술을 통해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힘을 얻기 때문에 동기유발 효과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허경호 대구 동촌중학교 교사 장애 딛고 음악으로 소통 ‘대일밴드’로 희망을 노래하다

대구 동촌중학교 허경호 교사, 그는 일찌감치 음악으로 아이들의 영혼을 어루만져주는 소통을 준비하고, 또 꿈꾸었다. 밴드부를 결성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고, 무대 위 공연에서는 직접 학생들과 함께 기타리스트로도 활약한다. 친구들끼리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감싸주자고 노래하는 아이들의 음악 밴드, 이름하여 ‘대일밴드’다.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대구 동촌중학교(교장 김선희) 본관 3층 공용교실에서 밴드연주와 함께 힘찬 노랫소리가 흘러나왔다. 열흘 남짓 앞둔 3학년 학생들의 졸업 공연 연습이 한창이었다. 공연 날짜가 임박하면서 일주일에 3일, 오후 7시까지 학교에 남아 맹연습 중이라고 한다. 학생들이 직접 지었다는 밴드 이름은 ‘대일밴드’. 음악을 통해 친구들끼리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감싸주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대일밴드’는 영어교과목을 담당하는 허경호 교사(40)가 지도를 맡고 있다. 이전까지는 기간제 교사였다가 3년 전 정교사 발령을 받으면서 동촌중에 부임한 허 교사는 시각장애인이다. 공용교실 바로 옆, 영어전용실에서는 허 교사의 눈이 대신 되어주는 안내견 ‘해냄’이가 늘 그의 곁을 지키고 있다.

밴드 결성은 허 교사의 기타 연주실력이 학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계기가 됐다. 그의 영어 수업시간, 허 교사는 직접 가사를 붙인 ‘인칭대명사 송’ 등을 기타연주와 함께 들려주며 학생들의 흥미와 수업효율을 높이곤 한다. 그렇다 보니 종종 점심시간이면 “선생님, 노래 한 곡만 들려

주세요!”라며 그를 찾아와 노래신청을 하는 학생들도 생겨나곤 했다. ‘아이들과 함께 밴드를 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그의 오랜 꿈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건 바로 그 무렵이었다. 이후 동촌중학교에서 기타 잘 치는 친구, 드럼 좀 두드릴 줄 아는 친구 등등. 밴드 결성 소식이 학교에 퍼지면서 숨겨놓은 재능을 발휘할 학생들이 하나둘씩 허 교사를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교사와 음악 활동, 두 개의 꿈을 이룬다!

“학창시절 저에게는 두 가지 꿈이 있었죠. 첫 번째는 교사가 되는 것이었고, 두 번째 꿈은 바로 음악으로 무대에 한번 서보는 것이었어요. 저의 청년 시절의 꿈들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룰 수 있었던 2019년은 저로서는 무척이나 의미 있고, 행복한 한 해였어요.”

아이들을 두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으니, 음악으로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져주면서 소리로 소통하자, 그런 생각을 품어왔다는 허경호 교사.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기타와 드럼을 배우면서 그 꿈이 실현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려 왔었다. 그런데 2006년부터 기간제 교사로 일한 학교에서는 그



꿈들을 한동안 유보할 수밖에 없었다. 특수학교이다 보니 시각장애 외에도 복합장애를 겪는 학생들이 많았던 까닭에 서였다. 그러다가 허 교사에게 기회가 찾아온 건 바로 2019년 9월, 동춘중학교에 김선희 교장이 새로 부임하면서다.

“부임하자마자 혹시라도 근무하는 동안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허 선생님과 상담을 하게 됐죠. 이제까지 장애를 극복해 오신 이야기들을 학생들과 어떻게 교감하면서 나눌 수 있을까? 그런 주제의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었고요. 그 자리에서 저 또한 허 선생님께서 간직해 오신 음악에 대한 열정을 단박에 눈치챌 수가 있었지요.”

김선희 교장은 바로 녀 달여 전, ‘대일밴드’ 탄생에 얽힌 일화를 들려줬다. 그러면서 “중학교 남자아이들의 경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게 마련인데, 음악을 매개로 자기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되면서 교내에서의 밴드 활동은 학교 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곤 한다.”면서 김 교장은 그 순기능에 대해 전했다.

밴드 창단 당시의 악기와 장비들은 모두 허 교사가 사용

하던 것이거나, 사재로 산 개인물품들로 채워졌다. 그 뒤 쟈 베와 드럼, 새로운 음향장치 등 몇몇 악기와 장비들이 학교의 지원으로 추가될 수 있었다. 김 교장은 “2020년에는 밴드부원들이 꿈을 키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일밴드 OB팀’이라는 즐거운 상상

대일밴드’의 첫 공연은 지난해 10월 11일, 학교축제 ‘동호제’에서 이뤄졌다. <여행을 떠나요>, <산다는 건>, <나는 나비> 등 선생님과 전교생이 지켜보는 앞에서 ‘대일밴드’는 첫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8명의 밴드부원 중 3학년 3명은 예고에 진학을 앞두고 있다. 특히 드럼을 연주한 손성민 학생은 일찌감치 대학 진로를 예술대학으로 결정, 세상을 아름다운 소리로 물들이는 드러머를 꿈꾸고 있다. 성민 학생은 “첫 공연을 하면서 객석에서 환호가 터져 나오고, 친구들로부터 멋졌다는 말을 들을 땐 정말 좋았다.”라면서 첫 공연 때의 감동 어린 소감을 들려줬다. 베이스기타를

연주한 신민석 학생은 “중학교 시절의 잊지 못할 좋은 추억 거리가 되었다.”라고도 했다. 또 메인보컬을 담당한 박선영 학생(2학년)은 “<산다는 건>을 부를 때 고음 부분에서 소리가 갈라지면서 음이탈을 하는 바람에 개인적으로는 흑역사(?)를 갖게 되었다.”라면서 당황스러웠던 당시를 귀띔했다. 선영 학생은 “이번 선배들의 졸업 공연에서는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잘 부를 것”이라면서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는 산타 복장을 한 교장선생님의 든든한 지원 아래 밴드부원들은 길거리 버스킹에도 참여했다. 또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음악을 통한 위로가 필요한 무대가 있으면 찾아가 공연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이번에 드럼, 기타, 키보드 등의 학생들이 모두 졸업을 합니다. 제가 1년만 더 밴드에 남아주면 안 되겠냐고 농담을 할 정도로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이에요. 현재는 1~2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2기로 활동할 멤버들을 모집하고, 오디션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어렵사리 탄생한 밴드부이니만큼 허 교사의 꿈은 ‘대일밴드’의 명맥을 오랫동안 잇게 하는 것이 목표이기도 하다. 그 자신도 중학생 시절부터 헤비메탈과 록, ‘서태지와 아이들’의 음반을 사 모으고, 그들의 음악을 즐겨 들으며 위로를

받곤 했었다는 허경호 교사. 음악 활동과 관련한 그의 꿈은 현재 먼 미래로까지 나라를 펴는 중이다. 이곳 동춘중을 떠나더라도 이 사랑스러운 졸업생들과 함께 연주하는 꿈을 이어가고 싶은 것이다. 이를테면 ‘대일밴드 OB팀’의 신나는 공연장면을 상상해 보는 즐거움 같은 것. 요즘 허경호 교사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의 즐거운 상상 중 한 장면이기도 하다.

소리를 매개로 나누는 제자들과의 소통

“밴드부를 지도하면서 저로서도 장애를 이겨내고 학생들과 함께 공연까지 해냈다는 만족감과 자신감을 얻은 건 무엇보다 큰 수확입니다. 교사의 본업인 수업 외적으로도 아이들과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매개로 더 큰 감동을 나눌 수 있었다는 성취감도 컸고요.”

태어나면서 시신경이 손상되어 5살 때부터 완전히 시력을 잃기 시작했다는 허경호 교사. 이후 35년 동안 겪어온 장애는 아직도 그로서는 완벽하게 적응이 된 건 아니라고 들려준다. 다만 스스로 겪어왔고, 앞으로도 감내해야 할 장애에 대한 세간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이제껏 해온 활동들을 중단없이 계속해 나갈 계획이란다.

“세상에는 장애로 불편을 겪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 존재합니다. 현재 이 시간에도 온갖 유형의 중도장애를 입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러한 장애인들이 제가 걸어가는 이 길을 지켜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계에서도 장애인 교사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들이 서둘러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기도 하고요.”

장애인들이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희망이 있는 프로젝트들을 계속 꿈꾸고 있다는 허경호 교사. 교직 사회에서도 장애인 교사들이 업무수행에 지장만 초래하지 않는다면, 차별 없이 자연스러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린다고도 했다. ②

1 허 교사가 지도하는 밴드 ‘대일밴드’. 허 교사의 기타 연주실력이 학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것이 밴드 결성의 계기가 됐다.

2 지난해 학교축제 ‘동호제’에서 성공적인 데뷔 무대를 선보인 ‘대일밴드’



금융투자체험관 '파이낸셜 빌리지' 경제 교육, 태블릿PC·보드게임으로 쉽게 배우자!



이브에 담임선생님과 함께 금융투자체험관을 찾았다. 전국 투자자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금융투자체험관은 여의도역에서 5분 거리의 금융투자교육원 4층에 자리하고 있다.

이날 체험을 신청한 당산서중 학생들은 먼저 '재미있는 생활 속 금융'을 주제로 20여 분간 금융강의를 들은 후 '우리 집 살림 꾸리기 보드게임'을 통해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각자 모둠을 이뤄 은행장을 뽑고, 게임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생소한 용어와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워 집중하기 힘들어하던 학생들도 차례가 거듭될수록 승부욕을 뽐내기 시작했다. 이처럼 학생들은 보험, 기부, 펀드 투자, 합리적인 지출 등을 보드게임을 통해 알아보며 가계금융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금융강의와 보드게임 진행을 맡은 김혜선 강사는 "어린이를 비롯해 다양한 연령대에서 체험관을 찾고 있다."라며 "경제금융 전반에 걸친 내용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 체험자들이 가장 호응도가 높다."라고 덧붙였다.

"헤이보스가 골든벨 1등이네요."
"우와~ 헤이보스는 누구야?"

환호성 속에 등장한 헤이보스는 김현호 학생. 마지막 문제는 놓쳤지만 금융 골든벨 우승자다. 각자의 아바타가 태블릿PC에서 활약하며 문제를 푸는 사이 체험하는 동안 배운 것을 테스트하며 기억에 남길 수 있다. 객관식이지만 생각할 시간이 길지 않아 문제가 계속될 때마다 여기저기서 탄식과 환호성이 교차한다.

문제 풀기에 여념이 없는 학생들은 서울 당산서중학교 3학년 1반 친구들. 지난해 12월 24일, 포근했던 크리스마스

초등학생~대학생까지, 연령대별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꿈꾸는 투자교실' 금융강의와 용돈 기입장 쓰기 게임을 통해 올바른 돈 관리 습관을, 'Hello! Job City' 게임 등을 통해 다양한 직업군을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 고등학생은 자본시장의 이해 및 진로 탐색을 주제로, 대학생과 일반인은 자산관리 및 취업특강을 주제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금융투자체험관에서는 신청자가 각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하도록 협의할 수 있다.

이어서 학생들이 찾은 곳은 영상관. 영상관에서는 이후 이뤄지는 체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연령에 따른 금융

교육 영상을 시청하게 된다. 당산서중 학생들은 주식회사의 발생 배경을 알아봄으로써 자본시장의 발전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영상관을 나서면 터치스크린에서 자신의 금융 능력을 진단해 보는 FQ진단(나의 금융지수는?) 코너를 만날 수 있다. 학생들은 투자자교육사무국 업체회 대리의 안내에 따라 각자 태블릿PC를 들고 디지털 라이브러리, 청소년관, 국제관, 은퇴설계관 등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관심 분야에 따라 자기주도 학습을 진행했다.

졸업을 앞두고 금융투자체험관을 찾은 학생들은 미래 설계 시뮬레이션에 큰 관심을 보였다. 세대별 재무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도록 도와주고 그에 따른 자산관리 계획을 세워 구체적인 금액으로 출력되는 것이 흥미로운 듯했다. 손근영 학생은 "나중에 커서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투자와 펀드를 잘 활용해 봐야겠다."라며 "후배들도 체험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했다. 김민주 학생도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실제 생활과 밀착된 체험으로 자기주도 학습 유도

자율학습이 끝난 학생들은 영상관에서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바로 금융 골든벨 시간. 태블릿PC를 가지고 각자 공부했던 내용을 평가해 보는 시간이다. 왈자지껄하게 한바탕 문제를 풀고 나면 금융강의 시간부터 들었던 경제 시사용어를 비롯해 파이낸셜 빌리지에서 배운 내용들이 정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 2, 3위에게는 금융투자체험관에서 마련한 소정의 상품도 주어졌다. 이날 골든벨 우승자인 김현호 학생은 "원래 금융에 관심이 있었는데, 금융



1234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당산서중학교 3학년 1반 학생들이 금융투자체험관을 찾았다. 경제금융 전반에 대해 게임과 시뮬레이션 체험을 통해 배웠다.

골든벨을 통해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 7개 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비영리 금융투자교육기관으로 성숙한 투자문화 조성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청소년이 미래의 합리적인 금융소비자 또는 금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금융투자체험관 '파이낸셜 빌리지'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8 금융투자교육원
- 개관 : 월~금 *단, 방학 기간 중 한시적으로 토요일 운영
- 이용요금 : 무료
- 운영시간 : 1회 09:30~11:30, 2회 13:30~15:30, 3회 15:30~17:30
- ※ 사전 예약 후 이용 가능, 최근 2년간 예약취소 3회 이상일 경우 신청제한)
-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3, 4회차는 개인, 소수 관람객이 이용 가능하며, 각 회차당 1시간만 운영
- 1회 9:30~11:30, 2회 13:30~15:30, 3회 15:30~16:30, 4회 16:30~17:30
- 신청방법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홈페이지(www.kcie.or.kr)에서 신청. 30명 이상의 단체일 경우 전화로 문의 (02-2003-9858)

오상훈 렉스로보 대표

로봇영재의 6전7기 창업 성공기 코딩로봇 ‘모디’로 SW교육 선도



코딩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모디(MODI)’에 대해 익히 들어봤을 것이다. 모디는 에듀테크 스타트업 렉스로보(대표 오상훈)에서 만든 코딩교육용 로봇으로 학교 현장에서 교구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간단하고 쉬운 조작법으로 초등학교생들도 쉽고 재밌게 코딩의 원리를 배울 수 있어 인기가 높다.

모디를 만든 렉스로보 오상훈 대표는 만 28세의 청년이다. 그는 지난 2014년 광운대학교 로봇학부 졸업 후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창업에 도전했다. 2016년 주력 제품인 ‘모디’를 론칭한 이후로 매해 500%의 성장률을 달성한 렉스로보는 현재 60여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전 세계 40여 개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오 대표는 2018년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젊은이 3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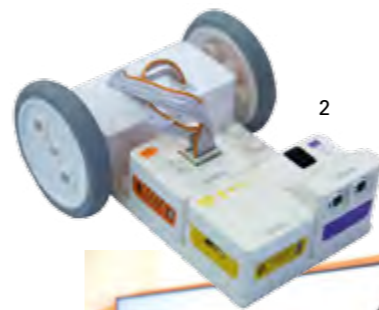
모듈형 로봇인 모디는 간단하게 입력(Input), 출력(Output), 셋업(Setup) 3개의 파트로 구성된다. 파트별로 색깔이 구분되는 13종의 모듈을 조합, 블록코딩을 통해 자신만의 알고리즘을 구성하고 창의력을 발휘해 새로운 창작품을 만들 수 있다. 코딩을 전혀 몰라도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 장점이다.

로봇에 미친 소년, 스승을 만나다

즐겁게 공부해야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었다는 오 대표는 어렸을 적 자신을 소위 “로봇에 미친 아이”였다고 표현했다. 그는 초등학교 시절 화성 탐사 로봇을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무작정 로봇 전문가를 찾아 나섰다. 운이 좋게도 그의 재능과 열정을 알아본 스승을 만나 로봇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

“그 어린 나이에 왕복 4시간 거리의 대학교수님을 찾아가 수업을 들었어요. 교수님께서 제게 ‘내가 선의로 너의 로봇 공부를 도와주는 것처럼, 나중에 커서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푸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때 어렵פות이 ‘나처럼 무언가 만들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더 쉽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하는 로봇을 좇아 대학도 로봇 관련 학과로 진학했지만, 졸업 즈음 그에게도 미래에 대한 고민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취업과 창업의 기로에서 오 대표는 “지금껏 그랬왔



1 오상훈 렉스로보 대표
2 ‘모디’로 만든 미니 자동차
3 렉스로보는 ‘2019 진로교육 한마당’에 부스로 참여했다. 진로강연을 펼친 오상훈 대표(사진 3)와 ‘모디’를 체험하는 학생들(사진 4).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해보자는 마음으로 창업을 시작했다.”라고 전했다. 그렇게 ‘로봇 테크로 밝은 미래를 만들자’라는 다짐으로 빛의 단위 럭스(lux)와 로봇을 조합한 렉스로보가 탄생했다.

6번의 실패 끝에 탄생한 ‘모디’

그러나 렉스로보에게 이름처럼 처음부터 밝은 앞날이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모디가 탄생하기 이전 스마트 책상, 스마트 화분, 스마트 멀티탭 등 다양한 아이템을 기획

했지만 전부 실패로 돌아갔다. 6번의 연이은 실패 끝에 마지막으로 나온 제품이 바로 모디였다.

“처음 창업하고서는 사실 비즈니스란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배웠던 로봇 기술로 이것저것 다 만들어 봤던 것 같아요. 실패가 거듭되면서 이제 그만하자는 친구들을 붙잡고 마지막으로 해보자고 했던 게 바로 교육용 로봇, 모디였습니다. 아마 모디마저 실패했다면 저도 포기하고 취업이나 학업으로 방향을 돌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도 6번의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하나였죠.”

오 대표에게 창업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다. 그는 젊은 패기와 할 수 있다는 ‘근자감’으로 계속 도전한 것이 부족한 경험을 극복하고 마침내 성공해낸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그에게는 1년 넘게 월급 없이 일만 해왔던 동료들에게 첫 월급으로 100만 원씩 줬던 것이 가장 뿌듯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불확실한 미래, 즐거움을 좇는 것이 답”

오 대표의 향후 목표는 렉스로보의 OS 기술을 활용한 IoT 플랫폼 구축이다. 모디로 코딩을 배웠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누구나 자신만의 스마트홈을 만들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디 이용자 확대와 IoT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불확실한 미래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오 대표는 ‘즐거움’을 좇으라고 조언했다. “미래는 지금의 세상과 비슷할 수도,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변하는 세상에서 그래도 꼭 지켰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즐거움입니다.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스스로 즐거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대를 돌아보며 ‘롤러코스터’ 같았다고 표현한 그는 “아직 롤러코스터 트랙이 끝나지 않아 즐겁다.”라고 전했다. ②

찰칵! 행복한 교육의 순간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에 떠오르는 단어 중 하나가 '시작'이죠. <행복한 교육>이
신년호를 맞아 '시작'을 주제로 독자 여러분이 직접 보내주신
사진을 담았습니다. 희망찬 기운이 느껴지는
사진과 사연들을 소개합니다.

정경

아름초 학부모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생으로 새
로운 시작을 하는 아이들을 응원하며
세종 솔빛숲유치원 1회 졸업식 사진을
담아보았습니다.

이명주

문태고 교사

1년 동안 함께 열심히 달려와 준 우리
학생들과 목표의 랜드마크 유달산 일
등바위에 올랐습니다. 유달산 정상
에서 '올해는 여자친구 생גיע 해주
세요', '올해는 전교 1등 하게 해주세
요!' 등 소박한 소망을 큰 목소리로 외
쳤습니다.

유연상

다정초 교사

우리 반 아이들과 2019년을 되돌아보
고, 2020년을 기대하는 '올해의 나, 내
년의 나' 활동을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
다. 학생들이 세운 새해 다짐대로 5학
년에 가서도 자신이 이룬 소망을 이루
길 기대합니다.



글. 손대환 명예기자

자유학기제, 연극활동으로 꿈에 날개 달기



세종시 갈매리에 위치한 양지중학교(교장 전순호)는 1학년 자
유학기 프로그램으로 한 학기 동안 '나를 펼치는 연극 이야기(지
도교사 손대환)' 수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 2019학년도 2학기에 진행된 자유학기제 주제 선택활동
'나를 펼치는 연극 이야기' 반은 학생들의 풍부한 창의성을 자유
롭게 표현할 수 있는 수업으로 학생들의 인기가 높아 1학년 4개
반에서 운영되었다. 지난 1월 2일 워크숍을 마지막 수업으로 학
생들의 아쉬움 속에서 그 막을 내렸다.

학생 중심의 협동학습으로 진행된 '나를 펼치는 연극 이야기'
는 '행복의 나라를 펼쳐요' 등의 주제로 한 학기 동안 △기획 및
대본 만들기와 콘티 작성 △캐스팅 및 역할 분담 △대본 읽기
및 화술 △무대동작 및 대화 △총연습 및 워크숍 과정으로 진
행되었다.

'행복의 나라를 펼쳐요'는 학교생활을 통해 일어나는 에피소드
를 1장 학교 가는 길, 2장 우리의 꿈과 끼, 3장 우리들의 고백을
세미 뮤지컬 형식으로 꾸며주며 학교생활의 고민을 풀어내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춤과 연기로
표현해 관객들로부터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협력과 소통으로 만들어가는 연극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학생
들은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 서로 협력하며 창의력을 발휘해 연

극 대본 창작에서부터 워크숍 공연 무대까지 일련의 제작과정
을 경험하면서 꿈과 끼를 한껏 발휘할 수 있었으며 더불어 진
로를 탐색하였다.

연출을 맡은 한유진(1학년 3반) 학생은 "연극 대본을 학생들이
스스로 분석하여 독창적인 인물을 만들어 낸다는 것에 창의적
능력이 발휘되어 좋았으며, 암기식 주입식 위주의 수업보다 학
생들이 자유롭게 창조하고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행복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음향을 담당한 박연서(1학년 3반) 학생은 "평소 음악을 좋아한
다. 연극 대본에서 인물과 장소, 사건에 따른 음향과 음악은 연
극의 주요 장면과 주제의식을 나타낼 수 있기에 음향과 음악
선정의 중요성을 새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연극에서 주인공 역할을 맡았던 이다(1학년 3반) 학생은 "무
대의 연기는 일상생활의 대화와 동작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고, 대본에서 요구하는 인물을 무대에서 표현한다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목소리 연기를 담당한 김가연 (1학년 3반) 학생은 "자신의
목소리를 마이크 음성으로 잘 표현할 수 있어 차후 방송국에서
성우로 활동할 수 있는 꿈이 생겼다. 자유학기제 연극수업이 나
에게는 진로탐색의 중요한 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글_엄장수 명예기자

월곶 청소년 뮤직 페스티벌!



지난해 12월 21일 토요일 눈발이 굵어지고 있는 오후 2시. 시흥시 월곶포구 예술공판장에서

는 월곶 청소년을 위한 뜻깊은 송년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월곶 주민자치 위원회 문화교육분과 주관으로 진행된 ‘월곶 청소년 뮤직 페스티벌’ 행사로 지역의 초·중·고생 17개 팀이 참여하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본 행사에서는 피아노, 전자 기타, 하모니카, 사물놀이, 드럼, 트럼펫 등 악기와 합창, 개인 및 그룹 댄스 그리고, 가요의 경연이 펼쳐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뮤직 페스티벌뿐만 아니라 행사장에 참가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버킷 리스트 만들기 행사 및 레

크리에이션으로 다채롭게 이어졌다. 이날 행사의 대상은 월포초 6학년 박가현 어린이의 댄스가 좌중을 휩쓸며 영예의 1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학교의 동아리를 통해 사물놀이의 전문가 수업을 1년여 수학한 월포초 5, 6학년으로 구성된 사물놀이 팀은 신명나는 한 자락을 선사하며 특별상을 받았다. 이들은 학교문화예술제는 물론, 졸업식에서도 공연한다고 하니 문화예술교육의 저변 확대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월곶동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는 문화콘텐츠를 통해 지역 청소년의 끼와 재능 발산은 물론, 지역 공동체와의 소통 및 교감을 위한 자리였음을 강조했다. 또한, 추가 예산 편성과 홍보 강화를 통해 이번 행사의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고 2020년에는 제2회 청소년 뮤직 페스티벌을 시흥시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글_오인선 명예기자

마을공동체가 함께하는 축제의 장!

“우리 마을에 이렇게 다양한 공동체가 있는 줄 몰랐어요. 여기 와서 경험해 보니 마을공동체 활동에 관심이 생기네요.” 경기도 고양시 주엽동 이수진 씨(39)의 말이다.

고양시와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주최로 지난해 12월 14일 고양시청 체육관에서 제1회 천 개의 마을 꿈 페스티벌이 열렸다. 본 행사는 다채로운 행사와 전시, 공연, 행운권 추첨, 버스킹, 플래시몹 등 참여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었다. 길놀이, 공동체 놀이, 웰컴 파티, 마을 꿈 파티, 굿바이 파티, 공동체 지원 사업 실속 상담, 전시 체험 등이 시간대별로 알차게 진행되었다. 60여 개의 마을공동체가 참여하여 지난 1년간 마을공동체에서 진행했던 사업들을 전시·시연하였다. 특히 본 행사 중앙무대에서 오후 시간대에 온 참가자들이 함께 퓨전 ‘아리랑’ 곡에 맞춰



간단한 율동과 댄스를 한마음으로 함께 추며 흥겹고, 멋진 플래시몹을 선보였다. 본 행사를 토대로 앞으로 고양시에 천 개의 마을공동체와 만 명의 마을 활동가가 활동하는 마을을 만들고, 공동체와 활동가의 마을 네트워크 형성을 목표로 매년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일이 많아진 요즘,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로 더욱 돈독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온 마을이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안심 지역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글_문승욱 명예기자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배추에 양념을~



“아이 매워~~”
“배춧속에 양념을 넣어야 해요~”
선생님의 설명으로 맵지만, 열심히 배추를 만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12일 부산초병설유치원 원아들이 김장을 만들었다. “양손으로 배추를 잡고 이렇게 양념을 묻히면 돼요.” 아이들이 제법 양념을 잘 버무린다. 작은 손에 비닐장갑을 끼고, 앞치마를 두른 아이들이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다. 김치를 잘 먹지 않던 7살 하윤이와 우성이는 “집에서도 해봤다.”라며 자랑을 한다. 직접 담근 김치를 먹어보며 아이들은 맛이 있다고 아우성이다. 허미 선생님은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김장은 양념이 맵거나, 편식으로 김치를 잘 먹지 않은 아이까지 김치를 잘 먹게 하는 힘이 있고 아무래도 자기가 직접 담은 김치라 더 특별할 것 같다.”라고 전했다. 입 주위가 빨간색으로 변해가는 아이들. 버무린 김치를 한 입 베어 물고 맛있는지 확인하는 모습이 참 귀엽다. 이렇게 아이들이 담은 김치는 한 포기씩 집으로 보낸다. 준비한 고기와 함께 맛있는 김치 시식이 시작되었다.

글_곽민호 명예기자

먼우금 교육공동체, 예술로 ‘꽃’ 피우다



인천먼우금초등학교(교장 김림자)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지난해 12월 송도 트라이보울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뽐내는 자리를 가졌다. 제5회에 접어든 정기연주회는 재학생 오케스트라 단원뿐만 아니라 본교 졸업생으로서 계속 악기를 다루고 있는 신송중학교 학생 일부와 성악가 및 전문 연주자들까지 함께 공연에 참여했다. 먼우금 교육공동체 모두가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 소통하는 따뜻하고 뜻깊은 자리였다.

글_이하성 명예기자

“너의 하루를 응원해! 사랑한 day!”



지난해 12월 9일 유독 추운 아침의 경남사천초등학교 앞 풍경이다. 머리에 빨간 하트 머리띠를 쓰고 손에는 힘내라, 너의 하루를 응원해, 얼싸안아 보아요, 난 특별해 딱 너만큼, 넌 소중한 딱 너만큼, 등등의 다양한 문구의 현수막을 들고 정문과 후문으로 나뉘어서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추어 “행복한 day~, 사랑한 day~, 감사한 day~” 프리허그 데이를 펼쳤다. ㉠

※ 행복한 교육 웹진(www.happyedu.moe.go.kr)에서 보다 다양한 기사를 확인하세요

미래 산업수요 대응을 위한 ‘전문대학 혁신방안’

최근 AI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 전세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스펀터가 지적한 바처럼 노동시장에서 기존직업군을 새로운 직업군으로 대체하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가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국가의 성장을 좌우하는 요소로 인식됨에 따라 국가의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의 변화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전문대학은 국가·지역 산업에 필요한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고등교육기술양성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최근의 학령인구 감소와 새로운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제도적인 규제 등으로 인하여 전문대 스스로 가능성을 발휘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전문대학이 새로운 산업·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재직자 등 다양한 성인학습자에게 필요한 직업기술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전문대학 혁신방안」을 지난해 말 발표하였다. 본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직업교육 질 제고

미래 신산업 수요에 적합한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전문대학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산업·현장 중심으로 전문대학의 교육과정과 학사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교원의 현장실무역량을 강화한다.

산업체가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융합전공제 등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을 확대하며, 교육기자재 공동사용과 직업교육 분야 K-MOOC 확대 등을 지원한다.

또한, 교원의 산업체 연수기회와 현장전문가의 교원임용을 확대하여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며, 이론과 실습이 결합된 실무중심 수업 등 교수학습법 개선을 지원한다.

일반고·직업계고와 전문대 간 수업을 연계하고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맞춤형 직업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연속성 있는 직업교육체계를 구축한다.

전문대를 입학하는 학생들의 출신고에 따른 맞춤형 수업과 일반고에 전문대학 위탁과정 확대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직업교육 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산업체가 주도하는 인공지능(AI) 중급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계고-전문대 조기취업형 인공지능(AI) 계약학과 도입(2022년 5개교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기능 강화

전문대학이 지역 성인학습자의 직업역량을 키우는 평생 직업교육기관으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학사제도 규제를 개선하고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고등직업교육 모델을 도입한다.

전문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입학정원의 상한 기준과 입학자격 조건을 완화하고, 단기 직업교육과정에서 외부시설 활용 허용과 학점은행제와 연

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전문대에서 석사과정까지 가능한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델인 ‘(가칭)마이스터대학’ 제도를 도입하여 직업계고 졸업자를 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연결해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로 육성하는 성장 경로를 설정한다. 2020년 정책연구를 시작으로 2021년 시범대학 선정·운영 및 법제화 작업 등 후속 작업을 추진하여 경쟁력 있고 특성 있는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사회 대응 직업교육 혁신기반 조성

전문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직업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의 협업을 강화한다.

전문대학의 혁신을 위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19년 2,908억→'20년 3,908억, 1,000억 원 증액)하고, 사업의 투명성·책무성 확보를 위한 성과평가 비중 상향, 예산집행 현황 공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성인학습자의 후학을 위해 단기 맞춤형 비학위과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의 다양한 학습수요를 흡수하고, 전문기술인재장학금을 신설하여 학기당 1,000여 명의 우수 학생을 지원한다.

또한, 전문대와 폴리텍대의 연계를 강화하고, 폴리텍대 신설 시 관계부처 사전 협의를 실시하며, 고용노동부와 함께 직업훈련사업 선도대학을 운영하는 등 부처 간 협업 강화와 관계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전문대학의 교육과정과 우수한 교원 및 시설을 활용하여 양질의 직업교육을 성인학습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면밀히 추진할 계획이다. ②

[그림] 학사제도 관련 규제개선(안)

현행	개선(안)
전공심화과정 총학생수는 해당연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 초과 불가	전공심화과정 총학생수는 해당연도 입학정원 상한기준 안호 또는 폐지 검토
전공심화과정 입학요건을 '동일계열 졸업자' 또는 '전공심화과정 설치학과 졸업자'로 제한	전공심화과정 입학요건을 '타 계열 졸업자' 까지 허용 검토 ※ 전공 이수 인정범위에 따라 일부 전공과목 이수 필수 요건
단기 직업교육과정 외부 시설 활용 불가	단기 직업교육과정 외부 시설 활용 허용 (후진학 선도대학 프로그램) ※ 시범 운영 후 확대 검토
단기 직업교육과정 학점은행제 연계 미흡	단기 직업교육과정 학점은행제 연계 검토 및 대학 간 상호 학점인정 추진

새해 달라지는 교육정책



고교 2, 3학년 무상교육 실시

2020년 1학기부터 전국 고교 2, 3학년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확대 실시된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하며, 연간 약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든다. 학교장이 수업료를 결정하는 일부 사립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지난 하반기부터 실시되었으며, 2021학년도부터는 고교 전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교육복지정책과 044-203-6517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도입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앞서 2020년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51곳에 우선 도입한다. 고교학점제란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하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 제도를 말한다.

중등직업교육정책과 044-203-6384



누리과정 지원 단가 7년 만에 인상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13년 이후 동결되어 온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7년 만에 처음으로 2만 원(22만 원 → 24만 원, 9.1%) 인상하였다. 2019년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분 1조 9,81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는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 및 어린이집 지원분(100%)으로 국고로 2조 1,67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국공립 유치원에 이어 사립유치원도 2020년 3월부터 회계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과인)을 전면 도입한다.

유아교육정책과 044-203-6235



초등돌봄교실 확충 및 온종일돌봄 체계 구축

새해에는 부처별로 분산되어 신청하던 온종일돌봄 신청을 '정부 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의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는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 기반 '다함께돌봄'과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이 있다. 돌봄 서비스를 부처별로 각각 제공되다 보니 이용자들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 행정 서비스 포털 '정부 24'를 통해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 044-203-7061



중·고교 과제형 수행평가 폐지

2020년 1학기부터 중·고교 수행평가 가운데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수행평가는 교과 수업 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교육현장에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3월부터는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과제형 수행평가가 전면 금지된다.

교수학습평가과 044-203-7031



교육급여 지원금 확대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교육급여 지원액이 인상된다. 특히 지난해까지 중학생과 동일한 지원액을 받았던 고등학생들의 교육급여 지원 단가가 올해에 62%가량 크게 인상되었다.

※ 교육급여(부교재비·학용품비) 지원 단가 : (초) 203,000원→206,000원, (중) 290,000원→295,000원, (고) 290,000원→422,200원

교육복지정책과 044-203-6946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대학(원)생과 학부모들의 학자금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0년에는 학자금 대출 금리를 기존 2.2%에서 2.0%로 인하한다. 또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상환기준소득을 기존 2,080만 원에서 2020년 2,174만 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상환부담을 낮췄다.

대학재정정책과 044-203-6973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지자체, 대학 등 다양한 지역혁신 주체가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자율적으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 신규로(가칭)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지원한다. 3개 지역의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에 1,08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역대학혁신지원팀 044-203-6926

예산으로 보는 2020년 교육부

전년 대비 2조 4,708억 증액된 77조 3,871억 편성

2020년도 교육부 예산이 2019년 본예산 74조 9,163억 원 대비 2조 4,708억 원(3.3%) 증가한 77조 3,871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2020년도 예산 77조 3,871억 원은 ①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교육비 투자 확대 ②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책총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③ 직업계고 활력 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01

고교 무상교육, 누리과정 등 교육비 투자를 확대하여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

2020년 교육부 예산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 고2·3학생(약 88만 명)을 대상으로 고교 단계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고 6,59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가계 가처분소득 월 13만 원이 증대되는 효과(2019년 최저임금 기준 월 16시간 근로소득 적용)를 기대하고 있다.

둘째, 저출산 시대 학부모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13년 이후 동결되어 온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7년 만에 처음으로 2만 원(22만 원 → 24만 원, 9.1%) 인상한다. 이로써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모든 유아(2020년 기준 119.9만 명)가 생애 출발선에서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사업 : (2019년) 3조 8,153억 원 → (2020년) 4조 316억 원(+2,163억 원)

※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 1인 기준 학부모지원금(31만 원) : 누리과정지원금(24만 원)+방과후과정비(7만 원)

셋째, 기초생활수급가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 지원금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더욱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교육급여(부교재비·학용품비) 지원단가 : (초) 203,000원→206,000원, (중) 290,000원 →295,000원, (고) 290,000원→422,200원

넷째, 아울러 2020년에도 약 4조 원의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을 투자하여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 맞춤형국가장학금 지원사업 : (2019년) 3조 9,986억 원 → (2020년) 4조 18억 원

02

국가혁신 성장의 토대가 되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 부문 재정책총에 중점

첫째, 등록금 동결 등으로 어려운 대학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학의 교육·연구력 향상을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특히 지역 위기와 입학 자원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대학의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지역혁신형, III유형)을 신설(1,080억 원)하였다.

※ 대학혁신지원사업 : (2019년) 5,688억 원 → (2020년) 8,031억 원 (+2,343억 원)

둘째, 혁신성장을 이끌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두뇌한국(BK)21 플러스 사업을 확대하였으며, 2020년 9월 출범 예정인 4단계 사업의 사업비는 연간 4,080억 원 수준으로, 현재 2,720억 원(3단계)에서 1.5배(+1,360억 원) 정도로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 두뇌한국(BK)21 플러스사업 : (2019년) 2,967억 원 → (2020년) 3,840억 원(3단계 잔여사업비 및 글로벌 박사양성사업이 포함된 수치)

셋째,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대입공정성 강화방안(11.28.)」의 성공적인 안착과 학생·학부모의 대입 부담 완화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160억 원 증액하였다.

※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 (2019년) 559억 원 → (2020년) 719억 원

넷째, 산학연협력 고도화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대학 내 산학연협력 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대학을 확대하는 등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강화한다.

※ 산학연협력 고도화 사업 : (2019년) 2,925억 원 → (2020년) 3,689억 원

03

직업계고 활력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첫째, 「고졸취업활성화 방안(19.1.28.)」의 일환으로 직업계고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장실습처 발굴 → 현장실습 지원 → 취업 지원 및 장려금 지원 → 후속 지원'으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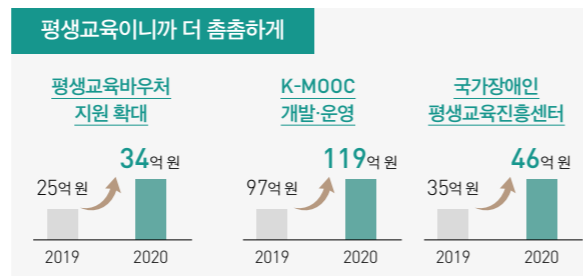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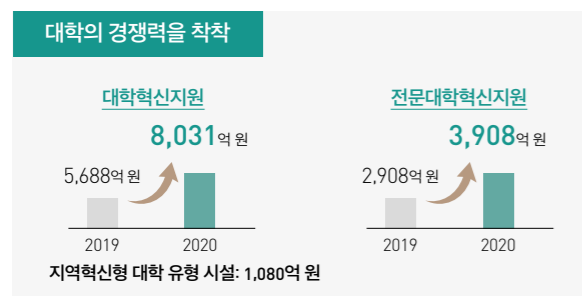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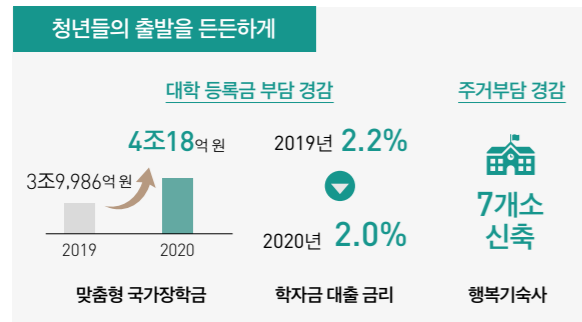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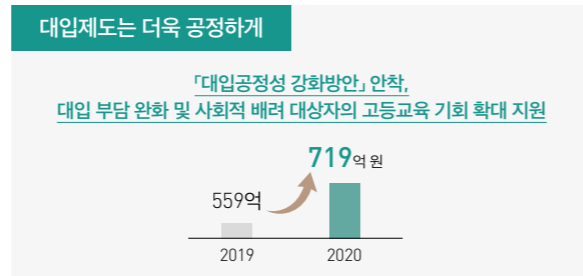
※ 중앙취업지원센터운영지원(18억 원, 신규), 기업현장교육지원(205억 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1,107억 원),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개발(18억 원, 신규) 등 총 4개 사업에 1,348억 원 지원

둘째, 전문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전문대학이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평생 직업교육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 전문대학혁신지원 : (2019년) 2,908억 원 → (2020년) 3,908억 원(+1,000억 원)

셋째, 전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기술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전문기술인재장학금(우수장학금)이 신설되어(71억 원), 약 1,000명의 전문대학 우수 재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년 만에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인상되고, 고교무상교육 국고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되었다.”라며 “2020년 예산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대학 경쟁력 강화, 대입 공정성 확보 등에 꼭 필요한 증액이 이루어진 만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㉓



교육기관 정부혁신 우수사례⑤ 강릉원주대학교 ‘사다리(査多利) 프로젝트’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다

강릉원주대학교는 지역과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발판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조사 발굴하고 협력 활동을 통해 이로움을 얻는 ‘사다리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학생들에게는 배움의 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변화된 인식을, 지역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기관에 제안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결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

2017년 시작된 사다리 프로젝트는 학생 스스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조사·발굴(査)하고,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多) 협력 활동을 통해 지역과 학생 모두에게 이(利)로운 바텀업(Bottom Up)방식의 프로젝트이다.

지역민을 대상으로 환경, 교통, 정책, 문화콘텐츠, 6차 산업화, 마을 개선, 상권 활성화 등 지역사회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전 분야에 대해 자유 공모 형식으로 학생 협력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있다. 지역의 혁신으로 이끌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하고 활동 후에는 경진대회에 참석하고 성과물을 전시하는 등 지역혁신의 사례를 확산하고자 노력하였다.

대학생의 눈높이에서 지역사회에서 겪는 다양한 불편사항을 고민하고 전공과 연계하여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한편, 창의적인 접근과 협력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

지방대학은 평균 타 지역 출신 학생들이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재학 중 대학 캠퍼스가 위치한 지역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하지만 강릉원주대학교의 ‘사다리 프로젝트’는 지역에 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지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인간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에 진출할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다리 프로젝트 우수성과 공유

‘사다리 프로젝트’는 2019년까지 133개의 그룹과 2,00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많은 활동 과제 가운데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 우수사례 활동을 소개한다.

2017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관광 문제 해결’**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지역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시민뿐만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도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학생들은 올림픽의 성공개최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냈다.

먼저, 올림픽 경기 관람을 위해 전 세계에서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대한민국과 강릉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심어주기 위해 ‘공용화장실’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공용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해 시청과 협력하여 지역의 상징물을 나타낸 식물을 활용한 액자와 설치물을 배치하여 시각적인 이미지 변화를 모색했다. 또한, 장애인복지센터와 협력하여 부족한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 정보 로드맵’을 구축했다. 특히 시설물 이용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개선을 요청하는 등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2018

○ **2018년 ‘청년의 시각으로 바라본 사회적 이슈’**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구조 속에서 지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대학생의 눈높이에서 지방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젊은 층의 인구 감소 문제를 비롯하여 주거와 소비생활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조사하여 정책제언지를 만들어 배포하였다.

또한, 대학 인근의 지역민과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취약구역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였다.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취약구역에 대한 학생과 지역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선제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개선을 요구하였다. 구역별로 넝쿨 및 폐기물을 제거하였으며, 벽화 그리기를 통해 어둡고 지저분한 공간이 밝고 깨끗한 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2019

○ **2019년 ‘지역의 불편 요소 해결’**

교통편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각종 영상매체와 SNS에 지역을 알릴 수 있

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올림픽 이후 감소했던 관광객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불편한 점은 항상 있기 마련이다.

지역의 규모에 따라 시민들과 관광객은 버스와 택시를 주로 이용한다. 하지만 버스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과 버스노선으로 인해 불만족이 높은 편이었다. 학생들은 지역의 모든 버스노선을 답사하고 의견을 조사하여 새로운 노선과 버스 정보 제공에 대한 수정사항을 시청 교통과에 제안했다. 또한, 외곽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의 경우 야간에 부족한 조명으로 식별이 어렵거나 위험 요소가 있음을 답사를 통해 확인하고, 친환경 태양열을 이용한 조명등을 버스정류장에 설치하는 등 교통 불편사항을 개선하였다.

지역과 대학의 상생 ‘사다리 프로젝트’

사다리 프로젝트 활동은 지역을 변화시켰다. 경찰서에서는 범죄 취약구역의 순찰등급을 상향시키고 시청과 협력하여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는 등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시청 교통과에서는 버스정류장에 태양열 조명을 확대 설치하고, 신규 버스노선을 증설하는 한편, 새롭게 구축하는 지역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사다리 프로젝트 활동은 지역민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관심이 높다. 지역에서 열리는 복지행사에 사다리 프로젝트(복지 분야) 활동 전시를 제안받았으며, 사다리 프로젝트와 환경보호를 연계하여 협력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다리 프로젝트의 성과를 높이 평가해 교육부 ‘교육기관 정부혁신 10대 우수사례’로 선발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좋은 결과를 발판삼아 정착기에서 벗어나 대표 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역과 소통·협력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②



문재인 정부 전반기 사회정책 성과와 과제

돌봄 확대·고교 무상교육 성과... 교육대물림 한계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코리어나호텔에서 ‘문재인 정부 전반기 사회정책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교육부는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직하는 부처로서 이번 포럼을 개최, 그간 추진되어 온 사회정책을 문재인 정부 국정 철학의 핵심가치인 포용·혁신·공정의 관점에서 재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영상을 통해 “그동안 국민 모두가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책을 추진했다.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전반적 생활여건이 2년 전에 비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았다.”라는 축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아직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과제가 많은데,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연명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은 “정부의 사회정책에 대해 경청해야 할 비판도 있지만, ‘짜주기식 정책’, ‘과도한 현금 살포’라는 비판은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OECD 평균 이하인 점을 고려했을 때 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수석은 노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포용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곧 전체 인구의 25%를 향해 가는데,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적절한 소득이 보장돼야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작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유미 교육부 차관보는 기초연설을 통해 △범부처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 수립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재양성을 위한 고교학점제 도입 △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을 통한 학생 중심 학교로의 변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평생교육 접근성 확대 △대입 사회통합전형 등을 하반기 사회정책 주요 과제로 꼽았다. 서 차관보는 “앞으로 사회 부처 협력으로 생애주기별 빈틈없는 사회서비스 제공과 혁신역량 강화, 소득·교육·고용 불평등 해소를 통해 2022년에 모든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고교학점제·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 등 하반기 주요 과제

이날 포럼에서는 조홍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교육부 주최 제3차 사회정책포럼 개최

포용·혁신·공정 관점에서 사회정책 성과 및 과제 발표

유 부총리 “전반적 생활여건 개선...부처 간 협력 필요”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이 각각 포용, 혁신, 공정의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조홍식 원장은 현 정부가 시민 친화형 복지정책으로 포용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복지정책 확대와 조세 강화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인 빈곤 문제 등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원장은 “보편적 아동수당제도 도입, 돌봄 및 사회서비스 확

대,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통한 교육혁신 등이 주요 성과로 꼽히는 반면, 소득분배 악화와 교육대물림 현상은 한계점”이라며 “과정 속에서 공평과 공정을 추구하며 사회통합을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나영선 원장은 혁신의 주체가 인적자본임을 강조하며, 인적자본의 축적과 활용을 통해 사람 중심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장은 “현재 청소년기에 집중된 대학진학 위주의 직업능력개발 체제를 연령통합적 평생학습체제로 전환해야 하고, 노동시장에서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일터 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연령통합적 평생학습체제·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등 제안

안성호 원장은 공정성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 중 공정분배 뿐만 아니라 공정절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정책 입안단계에 서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 위한 공론절차와 참여 기회 등의 요소를 적극 고려해야 함을 지적했다.

한편, 발표에 이은 종합토론 시간에는 구인회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홍선미 한신대 교수, 최영준 연세대 교수, 장준호 경인교대 교수,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사회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⑤

[서유미 교육부 차관보 기초연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불 돌파라는 경제지표 성과에 비해 삶의 질 지수는 OECD 40개국 중 30위에 불과하다. **경제성장에 걸맞은 삶의 질을 국민 모두가 누리는 것이** 지향점이되어야 한다. 정부는 돌봄, 배움, 일, 쉼, 노후 등 생애 전 영역에 걸쳐 포용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보편적 아동수당제도 도입, 돌봄시설 확충, 고교 무상교육, 치매국가책임제, 초·중학교 SW교육 의무화 실시 등이 그 사례다. **일과 배움, 휴식이 균형을 만드는 사회를**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와 공공 문화체육시설 투자를 확대했고,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 마련,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 확대, 체육계 비리근절 대책 마련 등 **사회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정책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학령기 입시 위주 교육에만 집중돼있는 점, 대입과 채용기회가 상위계층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팽배한 것은 한계점이다. 앞으로 생산인구 급감이 염려되는 만큼 국민 개개인의 역량을 키워 **성별, 고용형태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소득 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 앞으로 아동-청소년-청년-신중년-노인으로 이어지는 생애 주기별 사회서비스를 관련 부처와 협력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전 생애에 걸쳐 평생교육·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할 것이다. 소득·교육·고용의 불평등이 없는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은 민간 부분으로 확산하고, 대입에서도 사회적배려대상자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형을 정원의 10% 이상 선발하도록 한다. 2022년까지 모든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도록 노력하겠다.

2019 진로교육 한마당

AI·코딩 체험으로 미래 직업을 엿보다

정부세종컨벤션센터서 개최, 교사·학생·학부모 등 5천 명 방문
코딩,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진로체험 부스 제공
학부모 진로콘서트, 학교 진로교육 성과 공유 등 마련



'2019 진로교육 한마당' 현장. 행사장에는 인공지능(AI), 코딩, 메이커 교육, 미래 바이오산업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체험을 비롯해 총 57개의 진로체험 부스가 설치됐다.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생 스스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2019 진로교육 한마당'이 지난해 12월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17개 시·도교육청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올해로 4회를 맞았다. 행사장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 진로교육 관계자 등 5,000여 명이 방문해 진로체험 콘텐츠를 즐겼다. 올해는 '미래를 열어가는 진로교육'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인공지능(AI), 코딩, 메이커 교육, 미래 바이오산업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앞으로 변화할 미래 직업을 학생들이 탐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장에는 총 57개의 진로체험 부스가 설치됐다. 블루커뮤니케이션은 코딩로봇 체험 프로그램 부스를 운영해

인기를 끌었다. 학생들은 블록코딩 프로그램을 이용해 2족 보행 로봇 '어썸봇'의 움직임과 각도를 조정하며 새로운 동작을 만들어냈다. 지정된 걸음 수 내에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경리로 움직이도록 조종하는 게임을 통해 학생들이 더욱 재미있게 참여했다.

블루커뮤니케이션 한아름 팀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천시가 지원하는 SW미래채움사업을 통해 인천 지역의 소프트웨어 강사 100명을 양성하고, 초·중·고에서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교실'을 3년간 운영해왔다."라며 "학생들이 실제로 로봇이 움직이는 과정을 보면서 배우기 때문에 흥미로워하고 교육 효과가 크다. 앞으로 로봇코딩 이외에 드론코딩, 자율주행코딩 등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진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이커 교육 전문가들이 모인 협동조합 메이커인벤터에서는 3D펜과 3D프린터의 구동 원리를 배우고 3D펜을 사용해 입체물을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학생들은 3D펜으로 안경테 모양의 도안을 따라 그리며 메이커 활동에 열중했다. 메이커인벤터 손광호 센터장은 "세종 지역 아이들 대다수가 3D펜을 처음 접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이번 기회로 세종시에서도 메이커 교육 문화를 확산하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경북, 전남지역 등 주로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3D펜, VR/AR, 드론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국적으로 메이커 교육이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코딩로봇·3D펜 등 체험 통해 흥미 유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산업으로 꼽히는 바이오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하듯,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부스는 학생들로 가득 찼다. 이원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항체약품팀장은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센터 투어 프로그램과 꿈길을 통해 실험과 동물 해부 관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신청이 너무 많아 운영이 힘들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부스에서는 신약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생산센터, 기기센터 등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4개 센터를 각각 설명하고 단백질 약을 이용해 우리 손이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테스트해보는 체험이 진행됐다. 이 팀장은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작은 실험실을 꾸며 제약 과정을 보여주고, 바이러스의 생김새를 알아보는 종이접기 체험도 준비했다.”라며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의약 분야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고 전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미래 직업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담은 부스를 운영했다. 벽면은 각자 꿈꾸는 직업을 적은 포스트잇으로 빼곡히 채워졌다. 부스에 설치된 카메라 앞에서는 학생들이 현재 희망하는 직업과 꿈을 향한 다짐을 이야기하며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나갔다. 군산여고 박근아(1학년) 학생은 “오늘 체험한 프로그램 중 과학수사 체험으로 지문채취를 했던 것이 제일 인상 깊었다.”라며 “범죄 프로파일러가 되어서 이 분야 최고가 되겠다고 다짐했다.”라고 말했다.

“자율주행차, 직접 타보니 신기해요”

행사장 외부에서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체험이 진행됐다. 자율주행 서비스 스타트업 스프링클라우드에서 운영한

자율주행차 체험은 말 그대로 운전자의 조종 없이 차선을 따라 차가 스스로 움직이고, 차에 부착된 8개의 라이다 센서가 장애물을 감지하면 멈춘다. 앞면과 뒷면이 똑같이 생긴 자율주행차 내부의 11개 좌석은 체험을 신청한 학생들과 인솔 교사들로 꽉 찼다. 시범운행인 만큼 자율주행차는 미리 설정된 경로를 따라 시속 6km로 천천히 달렸다. 과속 방지턱이 나타나면 속도를 더 줄이고, 차선을 벗어나지 않으며 안전하게 운행했다.

자율주행차에 탑승한 학생들은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마치 놀이기구에 탄 것처럼 긴장하면서도 연신 신기한 듯 눈을 이리저리 굴렸다. 양지중 이승주(3학년) 학생은 “자율주행차에 처음 탑승해봤는데, 일반 자동차를 타는 것과는 달리 색다른 느낌이였다.”라며 “운전자 없이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학생들을 인솔한 양지중 박현숙 교사(진로)는 “오늘 행사를 통해 아이들이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전국의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모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다.”라며 “다만, 예상보다 많은 학교에서 방문해 휴게공간이 부족한 점은 아쉬웠다.”라고 전했다.

학부모·교원 진로교육 역량개발 위한 프로그램 마련

이날 행사에는 부스 체험 외에도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견을 수렴하는 토크콘서트와 특강을 마련했다. 미래사회의 변화에 따른 진로교육을 주제로 이범교육평론가, 윤혜경 세종 중촌고 진로전담교사, 장구철 잡플래닛 담당자, 김용기 세한대 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소통과 공감의 장을 형성했다. 더불어 자녀 진로교육 방법에 대한 전문가 상담도 이뤄져 학부모의 진로지도 역량개발을 도왔다.

전국의 학교 진로교육 운영 우수사례와 양질의 진로교육 콘텐츠 공유를 통해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에도 나섰다. 초·중·고 학교급별 진로교육 연구·선도학교 및 교사연구회 결과물, 연구 발표대회 수상작, 시·도교육청 및 유관기관의 개발 결과물 등을 전시·발표해 교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소에서는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을 위한 연구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진로탄력성을 알아볼 수 있는 게임 ‘진로탄탄카드’와 이주배경 및 중도입국 학생들을 위해 러시아어, 베트남어, 중국어 등 세 가지 언어로 번역한 진로교육 개발서, 유튜브 채널 ‘진로탄탄TV’ 운영을 통한 콘텐츠 보급과 확산 등이 그 내용이다. 조양진 전문연구원은 “2020년 1월부터 진로정보망 ‘커리어넷’에 소외계층을 위한 진로교육 콘텐츠를 탑재하여 선생님들이 강의 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지역사회 내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학교, 센터 간 협력 포럼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춘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진로체험의 소그룹·멘토링화, 학교-진로체험지원센터 간 협력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이 논의됐다. 교육부는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들의 진로개발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②



12 “우와~ 저절로 움직이네!” 자율주행차 체험을 한 학생들은 놀이기구에 탄 듯 긴장하면서도 연신 신기해했다.

345 전국의 학교 진로교육 운영 우수사례를 모은 부스 양질의 진로교육 콘텐츠 공유를 통해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에 나섰다.

외국인 유학생 14만 명 시대, 고등교육 국제화 방향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배경

2004년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유학 간 인구는 18만 명을 훌쩍 넘었다. 반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유학생은 1만 7천 명에도 못 미쳤다. 나간 인구가 들어온 인구의 10배가 넘으니 막대한 외화유출이 발생한 것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유학 적자를 줄이기 위해 2005년 'Study Korea 2012'라는 프로젝트를 입안하였다. 이는 2012년까지 10만 명의 유학생을 우리나라로 유치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장학생 제도인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재원을 대폭 확대하고 한국유학박람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어서 2012년에는 다시 'Study Korea 2020'이라는 프로젝트를 입안하였고 20만 명의 유학생을 유치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그동안 약간의 침체가 있어 2020이라는 목표 연도는 2023으로 변경되었으나, 올해 14만 명에 달하는 유학생을 유치했으니 목표 달성에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더하여 대학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인한 대학 등록금의 동결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립대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매우 적극적이었는데, 우리나라 4년제 사립대의 총수입 중 등록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62.4%에 달하는 상황에서 등록금 동결은 사립대 재정에 큰 타격을 주었고,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추가적인 등록금의 확보가 매우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었다.

최근 들어 보다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이로 인한 대학입학 자원의 급감이

다. 이는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인한 것인데, 1970년에 합계출산율이 4.53명이던 것이 2000년에는 1.3명, 2017년에는 1.05명, 2018년에는 0.98명으로 1명 이하로 떨어지게 되었다. 결국 대학 입학정원보다 대학입학자원이 더 적게 됨으로써 등록금 수입에 높게 의존하고 있는 대학들, 특히 사립대의 재정적 부담을 더욱 가중하고 있고, 이제는 대학들이 생존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발 벗고 나서게 되었다.

등록금 수입을 늘리기 위한 유학생 유치에 더하여 중앙일보 대학평가, QS 및 THE 세계대학평가 등 국내외 각종 대학평가에서 학위과정 유학생 비율,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교환학생 비율을 포함한 것도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동에 기폭제가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장단점

장점 우리나라 대학 캠퍼스에 외국인 유학생이 크게 늘어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러한 유학생의 증가가 대학의 재정 수입에 있어 숨통을 트여 주고 있음은 명백하다. 특히 학부과정 유학생보다도 석박사과정 유학생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은 유학생의 질적 수준 향상에도 기여한다. 2009년 대비 2017년에 학부과정 유학생은 9.4% 증가했으나, 석사학위과정 유학생은 78%, 박사학위과정 유학생은 112%나 증가하였다. 이제 외국인 석박사학위과정 유학생이 없으면 대학의 이공계 실험실을 운영하는 데도 지장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들이 대학의 연구능력을 유지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비학위과정인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오는 외국인도 225%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외국인 교환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우리나라 대학에서 영어강의가 증가하였고, 하계와 동계방학기간 동안 국제계절학기를 개설하여 기숙사 등 방학 중 유휴시설의 활용도도 높일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이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보다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게 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성과이다.

이러한 양적인 증가에 더하여 유학생의 국적도 다양해졌다. 2017년 학부과정은 142개국, 석사학위과정은 166개국, 박사학위과정은 116개국, 어학연수과정은 148개국, 교환학생은 107개국에서 우리나라로 유학을 왔다. 국제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다양성을 통해 대학을 글로벌 캠퍼스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면 국적 다양성의 증가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단점 지난 8년간 어학연수과정 유학생이 160%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학위과정에 비해 월등히 높은 증가율이다.

여기서 파생되는 새로운 문제점은 유학생의 양적 증가에 따라 불법체류자도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학위과정에서 불법체류 유학생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어학연수과정에서 불법체류 유학생이 급증하고 있는데, 2015년 4,294명이었던 불법체류 유학생 수는 2018년 단 3년 만에 12,526명으로 2.9배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불법체류 유학생의 69%는 베트남 국적의 학생이고 13%는 중국 국적의 학생으로 이들 두 나라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학부과정에서 불법체류의 문제는 유학생의 어학능

유학생의 증가, 대학의 재정 수입에 긍정적 영향
비학위(어학연수)과정 유학생 급증, 질 관리 필요
어학 능력과 전공 분야 학업 증진 방안 마련을

력과도 관계가 있다. 정부는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학위과정에 들어오는 데 필요한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TOPIK(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 수업 현장에서는 학술적인 한국어 능력에 못 미치는 학생들이 강의를 제대로 따라오지 못해서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이고 학사경고 등으로 중도탈락하는 비율이 서서히 증가해왔으며, 이들은 불법체류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교환학생의 증대로 인한 영어강의의 증가는 한국어 능력 위주로 입학하게 된 학위과정 유학생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있다. 이들에게 한국어와 영어 모두에 능숙하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 과도한 요구이고, 이에 따라 영어강의는 유학생의 학업성취도 제고에 새로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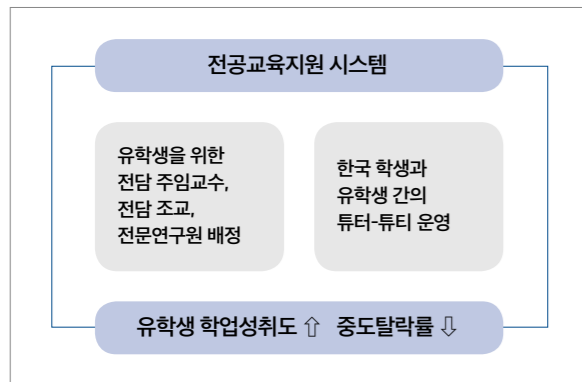
‘대학의 국제화’ 그 본질을 생각해볼 시점

먼저 유학생의 구성이 동질적이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유학생에는 교육 중심의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부과정 유학생도 있고, 연구자가 되고자 하는 석박사과정 유학생도 있으며, 어학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어학연수과정 유학생도 있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자 하는 교환학생도 있다. 이들의 역량과 자질, 유학 동기는 같은 것이 아니다.

학부과정 유학생들에게는 단순히 어학 능력의 증대뿐만 아니라 전공 분야의 학업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시스템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전공교육지원 시스템을 들 수 있다. 이는 각 전공 단위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영어강의트랙을 확대하고 우수한 외국대학과 커리큘럼을
공동으로 구성하는 것이 다양한 국가의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위한 전담 주임교수, 전담 조교, 전문연구원을 배정하고 내국인 학생들과 외국인 유학생들을 튜터-튜티 또는 멘토-멘티 관계로 만들어줌으로써 보다 직접적이고 심도 있는 학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지원시스템을 통해 유학생들의 학업성취도도 증가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에 대한 소속감이 증가하여 중도탈락률이 감소하였다. 또한, 내국인 학생들과의 문화적 교류가 학과 차원에서 저변화됨으로써, 국제화가 추구하는 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한 다양성의 확보라는 보다 본질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유학생의 양적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다주고 있다.



또한, 한국어 능력을 기반으로 한 유학생 유치를 넘어서서 영어권 국가 유학생의 유치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유학생의 국적이 다양해진 것은 사실이나, 학부과정의 경우 중국 유학생의 비율이 74%에 달하고 있어 단일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점은 지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영어강의트랙을 확대하고 복수학위나 공동학위 등 교육과정 공동운영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외국대학과 커리큘럼

을 공동으로 구성하는 것이 다양한 국가의 우수한 유학생을 국내 대학으로 유치하는 데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대학이 국제화를 왜 해야 하는지 그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시점이다. 국제화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안전지대를 조금씩 벗어나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단순히 영어 능력을 잘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으로서 가져왔던 사고방식과 익숙한 문화 이외에 세상에 다양한 사고와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다름에서 오는 불편함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국제화 역량일 것이다. 그렇다면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 학생이 늘어나면 글로벌 캠퍼스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러한 국제화 역량은 외국인 학생이 주변에 많다고 저절로 길러지지 않는다. 캠퍼스 내에서, 기숙사에서, 강의실에서, 동아리방에서, 그들 따로 우리 따로가 계속된다면, 외국인 학생들은 그들만의 어울림으로, 우리는 여전히 ‘아무 변화 없음’으로 지내게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모두 해외 체험을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Internationalization At Home’ 전략을 통해 우리 캠퍼스를 글로벌 캠퍼스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시급한 과제는 이중언어 환경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캠퍼스가 다양한 국적, 인종, 문화의 학생들로 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의식의 전환이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국제화 마인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교수들도 강의실에서 다양한 문화를 의식한 강의,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하는 교수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 2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통해 유학생 관리 강화

교육부는 유학생 선발관리, 적응지원 프로그램 등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심사하여 우수한 대학에는 인증을 부여하고 부실한 대학에는 제재조치를 부과해왔다. 인증제를 통해 언어능력, 의료보험 가입률 등의 지표가 개선됐으며, 국내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 중인 외국이 유학생과 어학연수생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서 불구하고 인증제가 학부과정 위주로 운영되고,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교육부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의 평가체제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아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3주기(20~23)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어학연수기관에 대한 질 관리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어학연수과정 인증은 학위과정 인증을 보유한 대학에만 부여한다. 둘째, 대학이 학습역량과 수학 의지를 갖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입학·선발 세부 지표를 신설하고 성공적인 학업 수학에 필요한 언어능력 기준을 상향 조정했으며, 학업·생활 프로그램 지표 명확히 하는 등 인증 심사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교육부는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대학이라도 유학생이 재학 중인 경우, 매년 유학생 관리역량 유무를 심사하여 부실한 대학으로 판단될 시 사증 발급 심사를 강화·제한하고 교육부의 국제화 정책·사업에서 배제한다. 또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부실대학에 입학할 희망하는 유학생에 대해 언어능력 보유를 의무화하였으며,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의 유학생이 부실대학 입학할 희망하는 경우 재정입증 특례가 적용된다. 2

3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20~23)			
학위과정		어학연수과정	
분야	세부 지표	분야	세부 지표
기본요건	불법체류율	기본요건	불법체류율
전략 및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화 사업계획 및 인프라(조직·예산) 학생 선발 및 입학 적절성 의료보험 가입률 	전략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 및 인프라(조직·예산) 의료보험 가입률 학급당 어학연수생 수
평가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유학생 학업·생활 지원 유학생 상담률 	평가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학연수생 등록금 부담률 한국어교원 자격증 비율 입학·수료관리의 적절성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도탈락률 유학생 공인 언어능력(신입/재학) 유학생 만족도 및 관리 		

“학교 숲속 친구들, 우리가 겨울나기 도와줄게”



전남 회천초등학교(교장 서재숙)는 지난해 12월 23일 생명존중 교육으로 ‘회천탐정대의 겨울 친구 찾기’ 활동을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회천탐정대의 겨울 친구 찾기는 제암산 숲 해설가를 초청하여 회천초 학교 숲의 수목을 알고 이해하며 식물들의 겨울나기 모습을 관찰하고, 학교 숲에 찾아온 숲 친구들의 겨울나기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해보는 활동으로 이뤄졌다.

숲 해설가와 함께 아이들은 자연과 몸풀기 활동을 시작으로 학교 숲을 이루는 전나무 명칭의 유래, 화석나무인 은행나무의 나뭇잎 찢어보기, 호랑가시나무의 전설, 목련의 겨울눈 만져보기, 도토리 씨앗총, 솔방울에 새미가 놓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보송보송한 털, 뽀족뽀족 가시, 비늘조각, 하얀 가루에 뒤덮인 겨울눈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며 아이들은 생명의 경이로움에 새삼 놀라고 신비로워했다.

2학년 이수진 학생은 솔방울 사이사이에 새들의 먹이를 넣어 주며 “우리 학교 숲을 찾아온 새 친구들이 우리가 놓아둔 먹이를 많이 먹고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다.”라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회천초등학교 서재숙 교장은 “학교 숲을 이용한 자연 체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작은 생명의 귀중함을 깨닫게 되었다.”라며 “지속적으로 학교 숲과 함께하는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손주들이 만든 할머니 자서전…세대공감 효과 특독



지난해 12월 22일 태안도서관에서는 특별한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태안의 학생들이 지역 어르신들의 삶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 만든 자서전의 출판기념회였다.

자서전 쓰기는 학생들이 윗세대를 이해하고 공경하는 법과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 역사를 배움으로써 마을교육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하는 좋은 기회도 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평생교육 활성화 공약을 걸고 직속 기관과 도서관을 통해 청소년과 문해교육 어르신인 함께 참여하는 자서전 편찬 사업에 주력하여 올해 학생 669명이 어르신 228명의 자서전을 펴냈다. 교육청은 지난 2017년부터 ‘세대공감 자서전 쓰기’ 사업을 실시, 학생과 지역 노인이 서로 소통을 통해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같은 달 11일엔 지난해 <요리는 감이여>로 큰 화제를 모았던 충남교육청 평생교육원에서 <오늘이 내 인생의 봄날입니다>라는 새로운 자서전의 출판기념회가 문정인(85) 할머니, 백소윤

(충남예술고 1학년) 양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기도 했다. <요리는 감이여>는 한글학교에 다니는 충청도 할머니들이 손 글씨로 쓴 요리법을 엮은 책으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 소개하기도 했다. 유년시절 배움의 기회를 놓친 할머니들이 충남교육청평생교육원과 부여도서관, 유구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초등학교학력인정 및 일반 문해교실에 참여해 뒤늦게 초등학교 과정을 공부하다 책을 펴낸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줬다.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학생교육문화원, 평생교육원, 남부평생교육원, 서부평생교육원 등 직속기관 4곳과 교육청 소속 도서관 4곳, 강경황산초등학교에서 초등과 중학 학력인정 문해교육을 운영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학생들과 어르신들이 자서전 쓰기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올해에도 이러한 세대공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

일반고 전환이 자사고·외고·국제고 학생에게도 유익한 이유

오는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체제는 설립 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의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반고 중심의 고교 생태계 복원이 필요한 이유와 이를 통해 향후 일어날 변화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교육체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논의해본다.

<편집자 주>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가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게 되었다. 만시지탄이다.

이들 고교가 없던 시절, 중학교는 사교육 무풍지대였다. 아이들이 독립된 주체로 서기 위해 거치는 사춘기 시절을 별 불편 없이 경험했다. 그런데 20여 년 전 특목고가 들어서고 10년 전 자사고가 들어서면서 고교가 대학 못지않게 서열화되고 대학들이 이들 학교 졸업생들을 우대한다는 소문이 자자해지자, 이들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는 1차 관문이 되면서 고입경쟁은 격화되었다. 사춘기, 즉 부모로부터 독립된 자기를 찾아가기 위한 자유는 실종되고 중학교 사교육비는 고교 사교육비를 압도했다.

여기에 이들 고교들이 다단계 입시 과정을 통해 상위권 중학생들을 차례차례 독식하자 일반고는 이들과 경쟁할 수 있는 인적 기반을 잃었다. 이는 비단 일반고만의 재앙이라 볼 수 없다. 특목고 학생들이야 상위권 대학들이 그들을 우대한다는 점과 면학 분위기가 좋다는 점에서 이런 체제를 싫어할 리 없다. 그러나 이는 짧은 생각이다. 이런 동질집단의 문화에 익숙하게 되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큰 문제에 부딪힌다. 학교 간판 때문에 좋은 기업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최근 기업 환경은 출신학교 간판과 동질집단 속에서 살아온 경험이 독이 되는 상황이다. 기업은 학교와는 달리 끼리끼리 모여 있는 고객들을 상대하는 곳이 아니다. 다양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이해하며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 홍보해야 한다. 특목고 졸업 후 교사가 되고자 해도,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배경과 전혀 다른 아이들을 상대로 교사로서의 실력을 발휘해야 한다.

공존 능력을 통해 길러지는 자생력과 리더십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욕구나 성향을 가진 소비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욕구를 분석하며 그 필요에 맞추어 기업의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일에 몰두해야 한다는 것이고, 수업시간에 내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잠자는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들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그런 교사의 효능감 없이 안정적 직장이라 해서 교사로 정년을 마친다면, 그의 삶은 재앙이다.

즉, 고객과 학생들과 서비스 받아야 할 대상에 대한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와 똑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공감 능력이 아니다. 공감이 능력이 되려면, 나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읽어내며 그들의 필요에 맞추어 소통할 때 가능하다. 그런 ‘능력’으로서의 공감을 경험하는 것은 초중고 시절이다. 그런데 그런 이질적인 집단 속에서 뒤엉킨 경험이 없이 오직 나와 비슷한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공간에서 좋은 면학 분위기를 즐기며 학창시절을 보내왔다면, 20대 후반부터 살아갈 40년의 직업 인생은 적잖이 당황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은 이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 초중고 교육을 혁신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기질과 성향이 다른 사람들과 뒤섞여 사는 가운데 빛어지는 공존 능력을 키워야 직업의 영역에서도 자생력과 리더십이 길러진다는 그 이유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초중고 시절에 학생들의 성적과 부모의 경제력 등으로 나누어 교육시키는 분리교육 체제를 극도로 회피한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방식을 허용해버렸다. 그로 인한 재앙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므로 특목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그 학교 소속 학생들에게 유익하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이런 분리교육을 가능하게 했던 고입 5~6단계 불공정 입시 경쟁 제도를 당연한 것처럼 방치했다. 영재고에서 먼저 우수학생을 뽑아가고 그다음 남는 학생들을 특목고와 자사고가 끌어가고 그 후에 자율학교가, 그렇게 해서 남는 학생들을 일반고가 담아내는 방식은 전형적인 불공정 입시이다. 만일 대입에서 상위권 고등학생들을 서울대가 먼저 뽑아 간 후, 연대와 고대가 뽑아가고, 남는 학생들을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으로
중학생들의 입시 경쟁은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 틀림없다.

인서울권 대학들이, 그 후에 지방대가, 그 후에 전문대가 뽑아간다고 하면, 국민들은 그 부조리를 참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고교입시에서는 버젓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용인되고 있었던 것이다.

여전히 남겨진 ‘입시에 유리한 교육과정’에 대한 우려

그런데 정부가 외고·자사고·국제고를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이라 기대한다. 지금은 실감 나지 않겠지만, 그때가 되면 중학생들은 더 이상 고입 경쟁 문제로 지금과 같은 수준의 고통은 겪지 않을 것이다. 중학교 교육도 학교와 교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정상화할 수 있는 기초는 놓이게 될 것이다. 다만 ‘어느 정도’라고 말한 것은,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이번 방침을 보니, 외고가 일반고로 전환되어도 그 학교의 외국어 중심 교육 과정을 그대로 존중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반고도 학점제에 발맞추어 교육과정을 얼마든지 외고처럼 특성화할 수 있으니, 표면적으로는 외고만의 차별적 혜택이라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다. 학교 마음대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라고 한다면, 너도나도 과학, 외국어, 수학 등 입시에 유리한 교육과정을 만들고 싶어 할 것이다. 좋은 일이 아니다. 더욱이 공립 일반고는 그렇게 하려 해도 교사 수급 문제 등으로 입시에 유리한 교육과정은 거의 불가능하고, 돈 많은 사립학교 정도가 그런 정책으로 혜택을 볼 것이다. 따라서 기존 외고·자사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화되어도 그 교육과정은 남을 것이다. 물론 지금보다는 나은 것은 분명하다. 그래도 걱정은 된다. 정부가 이 문제에 신중해야 한다.

과학고·영재고 입시 준비 과정도 혁신 필요

또 다른 문제는 과학고·영재고는 여전히 이번 정부의 결정에 예외가 된다는 점이다. 물론 정부가 약속한 바대로 과학고·영재고의 입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약간의 개선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입학생 숫자가 중학생 전체와 비교하면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 소수 학교들이 중학생들의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고통에 가할 영향은 속

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 학교도 일반고로 전환하거나 혹은 영재교육 상 필요하다면 독립된 학교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고 위탁 교육기관으로 돌리는 것이 옳다.

시간이 걸릴 문제이므로 입시부터 먼저 개선한다면, 이들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짧게는 초등 2~3학년, 길게는 5~6세 단계에서 시작되는 과학고·영재고 입시 준비 과정을 혁신해야 한다. 현재 과학고·영재고 재학생들은 소수의 ‘타고난 영재’와 다수의 ‘만들어진 영재들’로 섞여 있다. 타고난 영재들만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들어야 한다. 평범한 아이를 굳이 영재로 만들기 위해 학원에 보내어 혹사하려는 부담을 없앨 입시제도와 학교 체제를 구상해야 한다. 한국의 과학기술 고급 인력을 양산해야 한다는 명분이 실제 이들 학교 존립 허용의 이유라면, 이들 학교 졸업생들 태반이 의대에 진학하려는 기현상을 철저히 바로잡아야 한다. 개인적 특권을 위해 막대한 국민 세금을 이들에게 쏟아붓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 졸업하면 특권적 지위는 없고 오직 국가에 이바지하는 과학기술 영역으로 진출하는 것만 격려하는 통로로 이들 학교를 관리할 때, 개인의 특권을 점유하려는 이상 열풍과 과도한 사교육 경쟁은 막을 수 있다.

세간에서는 특목고·자사고 등을 없애면 강남 일반고가 각광을 받고 결국 강남 부동산 값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 우려한다. 틀린 지적이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지금보다는 낫다. 지금은 입시에 유리한 학교와 지역이 뒤섞여 중학생들을 입시 노예로 만들었다면,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으로 강남 이사 현상은 있겠지만 적어도 중학생들의 입시 경쟁은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 틀림없다. 그것만으로도 큰 성과다. 또한, 강남 쏠림 현상을 막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학입시 때 현재 서울대 등에 적용하고 있는 지역균형 할당제 등을 상위권 대학들에 확대 적용하고 그 비율을 높이면 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그 방향의 정책 개선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외고·자사고·국제고가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된다는 전제를 토대로 한 것이다. 해당 고교에서는 헌법 소원을 통해 이 시행령을 무력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그 사이에 현재 시행령에 기반을 두고 있는 고교체제를 법률에 근거한 안정적인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②

‘매너리즘’ 극복하는 선생님들의 자세!

Q. 교직에 선 지 10년차, 매너리즘 어떻게 극복하죠? 교사 10년 차에 접어들어 어느 정도 학교 일들이 파악되고 손에 잡히는 시기가 됐습니다. 수업을 하고, 동료 교사들과 업무를 나누는 것도 익숙해졌죠. 그런데 업무가 익숙해지니 매너리즘에 빠질 것 같아요. 딱히 힘든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휴직을 할까, 대학원 공부를 해볼까, 아예 다른 분야에 도전해볼까 온갖 생각이 듭니다. 이 매너리즘 어떻게 극복하면 좋죠?



어떤 일이든 10년을 해오셨다면 선생님은 이미 가르치는 일의 장인입니다. 10년이란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20시간씩 하면 10년이 돼야 비로소 1만 시간이 되는 ‘만 시간의 법칙’과 유사합니다. 수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가장 밑 단계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배우면서 성장하는 10년의 세월이야말로 전문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이자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르치는 일은 그럼에도 매너리즘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이들과의 일상은 너무나 바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업무와 수업을 처리하다 보면 정작 교사는 자신을 들여다보고 학급의 아이들을 살펴볼 여유를 가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학급이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나는 지금 왜 힘겨운지 돌아보지 않은 채 하루하루 버텨가며 살아가게 되기 쉽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고경력 선생님과 저경력 선생님을 구분하는 잣대 중의 하나가 바로 ‘여유’라고 생각합니다. 여유가 없는 선생님은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느라 바쁜데 그러다 보니 어딘가에서 빈틈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빈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01 잠시 멈춰 서서 학급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깊게 살피시길 바랍니다.

교사 자신이 상처받았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지표, 교사가 지쳤을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무엇일까요? <희망의 심리학> 저자인 김현수 교수님은 ‘스스로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는지 살펴보면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상처받은 교사의 가장 큰 특징은 ‘아이들을 쳐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무의미한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반복할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 서서 학급 안에서 자신의 모습과 학생의 상황을 깊게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급에서 ‘나는 처음 발령날 때 되고 싶은 선생님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있는가?’, ‘아이들과의 관계는 잘 맺고 있는가?’, ‘학생들은 의미 있는 배움을 얻고 있는가?’ 등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내 마음이 어디서 흔들리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천천히 찾아보아야 합니다.

교사의 내면을 중심으로 학급을 본다는 것은 교사의 속 마음을 서로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평소에 쉽게 말하지 못했던 교실에서의 아픔과 상처를 동료 교사들에게 쏟아내면서 동병상련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자주 지각을 해서 너무 화가 나요.”

학급경영의 서투름을 공개하는 것 같아 자꾸만 감추는 이야기들을 마음을 열고 서로의 감정을 이야기하다 보면 참 희한하게도 힘이 생깁니다. 특별한 처방을 받는 것도 아닌데 동료 교사가 내 아픔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02 2020년, 서로를 지지하는 공동체와 함께하시길 권합니다.

‘딸과 함께 비행기를 탈 때마다 승무원이 내게 다짐하는 말이 있다.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내가 먼저 산소마스크를 쓴 다음 딸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한 번도 ‘선생님 스스로를 먼저 돌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학생들은 선생님께 받아야 하는 도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말해주는 승무원과 같은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전직 교사이자 교육 전문가인 제니 그랜트 랭킨(Jenny Grant Rankin)의 <교사 번아웃 탈출 매뉴얼> 책 속에서 발견한 문장입니다.

교사는 혼자 수업하고, 대부분 혼자 수업 준비를 하며, 개인적인 근무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평균 66%의 교사는 지지 집단 없이 혼자 수업을 계획하고 수행합니다. 수업의 질은 여러 교사의 참여를 통해서 더욱 향상됩니다. 학교에서 매너리즘과 번아웃이 일어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서로를 지지하는 공동체가 부족하기 때문(Maslach&Leiter(2008), Skovholt & Trotter-Mathison(2011))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20년에는 좀 더 잘 가르치기 위해 교사들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모임에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꼭 공부 모임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댄스 모임, 배드민턴 모임 등 움직임이 가득한 활동을 하는 모임에 함께 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몸과 감정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기력감은 몸을 무력하게 만들어 자꾸 에너지를

줄이고, 움직임을 통한 활기찬 활동은 정신적인 활력을 주기 때문에 에너지를 자꾸 사용하고 심장을 뛰게 만들고 평소와 다른 화학물질이 몸에서 생겨나면 감정에도 변화를 만든답니다.

03 일상의 삶 속에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만들어 보세요

많은 교사들은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올바른 자기인식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좋은 교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안팎의 변화에 끊임없이 적응하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에서 토트 휘태커가 소개한 38년째 5학년용을 가르친 선생님은 매너리즘에 빠진 저를 다시 힘내게 하는 분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늘 열정적일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38년째 5학년용을 가르치지만,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올해가 처음이거든요.”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사람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을까요? 그 사랑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류애를 가지려고 꾸준히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도로 인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교사 내면에서는 매너리즘을 깨트리는 진정성 있는 동기유발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제가 만난 모든 교사들은 진심으로 반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돈 보스코 신부님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아이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교과서 봐, 읽어, 풀어, 나와서 써” 하며 자신에게 지쳐있는 모습이 느껴진다면, 한명 한명 눈을 마음을 다해 마주치며 아이들의 사소하지만 위대한 일상에 ‘환대’의 말을 걸어주는 하루이길 응원합니다. ㉠

탁 썸과 산골 학교 아이들의 좌충우돌 한 해 살이 말하는 대로 펼치기

신문지 돌돌 말아 가늘고 긴 막대기 만들었다. 만든 막대로 무얼 할까. 아이들이 아무렇게나 말했다.

“칼싸움!”

“독화살!”

“창던지기.”

“인중에 대고 오래 버티기.”

“피 빨기.”

“손바닥에 올리고 중심 잡기.”

“리듬 치기.”

“카누 타기.”

아이들이 말한 모든 것을 하게 했다. 눈 가리고 마주 서서 칼싸움을 했고, 밀림에서 짐승 사냥하는 것처럼 혹 붙여서 독화살 쏘았다. 빙 둘러 앉아서 통탁탁탁 타닥타닥 투타닥타닥 타닥타닥 리듬을 만들어 쳤다. 인중에 대고 버티기는 입술을 앞으로 위로 내밀고 코는 아래로 내리고 그 사이에 막대를 끼웠는데, 서로 마주 보고 버티다가 웃음이 터져서 떨어뜨렸다. ‘피 빨기’는 난감했다. 말을 꺼낸 아이가 그 긴 장난으로 한 말이니까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이미 입에서 말이 나와 버렸으니 어찌나. 그 말을 꺼낸 사람이 윤서니까 윤서 피라도 빠는 수밖에. 아이들이 고도비만 윤서를 바닥에 눕혀놓고 종이 막대로 빠는 시늉을 했다. 짹짹 소리가 날 때마다 윤서 몸이 줄어들었다.

“칼싸움, 투호, 독화살, 카누 타기, 빨대, 리듬 치기가 한꺼번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을까?”

내가 묻자 아이들이 한 마디씩 보탤다. 이야기 제목은 「캐리비안의 해적」이다. 우리는 막대기 하나씩 들고 「캐리

비안의 해적」 놀이를 했다. 보물 찾으러 간다고 영차영차 노를 젓는다. 배 위에서 축제가 벌어지자 리듬에 맞추어 춤을 추고, 손바닥에 올려세워서 중심 잡고, 인중에 대고 오래 버티다가 드디어 보물섬을 발견한다. 그런데 섬에서 다른 도둑들을 만나 칼싸움을 벌인다.

막대 하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이번에는 ‘술병’이다. 술병 하나면 안 되는 게 없지. 술병에 바람을 불어 넣을까, 꽃한 송이를 꽂을까, 술병을 세워놓고 볼링공을 던질까, 술이 조종해서 벌어지는 술꾼들의 세계를 보여줄까. 아냐, 술병은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학교에서 공부 안 가르치고 술을 가르친다고 항의 신고가 들어올지도 모른다. 술병 대신 ‘시’로 하자. 시 한 편이면 안 되는 게 없지. 시 읽는다고 신고할 학부모는 없을 테니 말이다.

아이들이 교실 책꽂이에서 시집을 꺼내 펼쳤다. 고른 시로 무엇을 할까. 리듬 치기를 할까, 독화살을 날릴까, 술을 빨아들일까, 꽃을 꽂을까. 금방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궁리하는 동안, 손에 든 시집이 자꾸 바뀌고 시가 바뀌고 책장에는 침이 묻고 때가 묻는다. 그러는 동안 더러는 시와 친해지는 아이도 있을 것이다.

윤서가 고른 시는 정연철의 「우산 사용법」이다.

두 개보다는, 한 개

큰 것보다는, 작은 것 //

우산 속에서 팔짱 낀 두 사람, 어깨동무한 두 사람

더 따뜻해, 더 정다워

“떨어진 것보다는 붙어있는 게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지 막대를 서로 붙여서 아름다움을 표현해요.”

한 사람의 말이 노래가 되고 춤이 되고
집과 길과 마을이 되는 곳.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막대기와 막대기를 서로 이어서 따뜻하고 정다운 것을 표현하기로 했다. 무엇이 따뜻하고 정다운가? 한 사람씩 이야기했다.

“같이 우산 쓰고 가는 두 사람!”

두 학생이 막대기 우산을 쓰고 걸었고, 그러는 동안 다른 아이들은 자기 몸과 신문지 막대기를 서로 이어서 빗줄기와 바람과 지나가는 자동차를 만들었다.

“햇볕 쬐는 고양이!”

고양이 두 마리가 서로 기대고 누워 햇볕을 쬐 때, 아이들이 지붕과 마당을 만들고, 뻗어 나오는 빛을 표현했다. 한 마음으로 모이니까 따뜻하고 정답고 아름다운 것 맞다. 말하는 대로 다 펼쳐진다.

영한이는 송진권의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를 읽었고, 연극을 하자고 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
티브이도 켜지 말고, 게임도 하지 말고, 무엇도 되지 말아요 //

나는 나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
어떤 생각도 내 속엔 없어요, 이런 글도 쓰지 말고 //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봐요 //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 무엇도 되기를 싫을 때니까

아이들과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언제인지 차례대로 이야기해 보았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때요.”

“눈꺼풀에 빛이 닿을 때 더 일어나기 싫어요.”

“잔소리 들을 때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아침에 깨울 때 몸은 일어나도 영혼은 누워있어요.”
아이들 말이 대체로 비슷하다. 아이들 말을 모아서 칠판에 적었다.

아침에, 떠오른 해의 빛, 눈꺼풀에 닿는 해의 빛, /
포근하다 이불이,

울 엄마는 소리친다. “빨리 일어나!” / 편안하게 몸을 동
글이며 잠을 잔다.

“이불 개! / 음, 어디지. 풀리다 더 자고 싶다.

“밥 먹어!” / 아, 하기 싫다.

“다 해!” / 음...

몸은 바닥에 있지만, 내 영혼은 다른 데 가서 놀고 온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영혼이 탈출하는 장면을 연극으로 만들었다. 닫혀있던 막대기 창문이 양쪽으로 떨어지며 드러루 열렸고, 진짜 몸과 영혼의 몸이 나란히 이불 덮고 누워있다가 잔소리가 시작되면 유체이탈. 진짜 몸은 그대로 바닥에 누워있고, 영혼의 몸만 스르륵 일어나서 밖에 나가 춤추고 기차놀이 하며 놀다가 다시 제자리에 들어와 누웠다가 돌이 똑같이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말 속에 발을 넣고 가방 메고 학교로 가는 연극이다.

말하는 대로 안 될 게 무어냐. 아이들과 시를 읽는 지금 여기 이 자리는 한 사람의 말이 우뚝 서는 곳, 한 사람의 말이 노래가 되고 춤이 되고 집과 길과 마을이 되는 곳. ㉠

필자는 1968년 강원도 양양군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같은 마을에서 살며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다. 현재 전교생이 39명인 조산초등학교 산골 아이들과 산과 바다를 누비며 작지만 확실한 교육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

학교상담 전문가가 전하는 우리 아이 심리 다문화 학생 모하메드의 고민

우리나라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은 2019년 기준 137,225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2.5%에 해당한다.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학생들이 이제 교실 속에서도 낯설지만은 않다. 그런데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여전히 우리 사회 속에 남아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문화 학생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문제

모하메드는 중동에서 온 초등학교 3학년 아이다.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랍어만 할 뿐, 선생님을 포함한 학급 아이들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다. 아이들이 영어와 중국어로 말을 걸어 보았지만 역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다. 모하메드는 놀이할 때도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웠고, 수업내용은 더욱 따라가기 힘들어했다.

점심시간에는 이슬람교의 신앙원리에 따라 할랄 음식을 먹어야 해서 고깃국이나 햄 같은 것은 거절하고 밥과 과일로 끼니를 해결했고, 어쩌다 고기 섞인 비빔밥이 나오면 밥도 먹지 못하고 과일만 먹었다. 또한, 학급에서 믿을 사람은 담임선생님밖에 없다고 여겨서 선생님께 바짝 붙었고, 선생님이 회의에 가려고 자리를 비울라치면 눈에 띄게 불안해하면서 견디지 못했다. 게다가 아이들은 선생님이 모하메드에게만 관심을 준다고 생각해서 서운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 문제로 여러 선생님이 의논하기 시작했다.

진단

아이들은 정말 가르치는 대로 크다. 선생님이 친하게 지내라고 가르쳤더니 정말 친구가 되어주는 게 아닌가.

학교에서는 한글교육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방과후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외국인에게 한글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퇴임 선생님의 도움으로 모하메드가 한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었다. 한글은 의외로 익히기 쉬운 글자여서 모하메드는 외국인용 교재로 단기간에 한글을 배울 수 있었다.

그다음으로 영양 선생님이 모하메드에게 관심을 가지고 급식을 지도해 주셨다. 급식실에 들어오는 모하메드에게 늘 듣던 그 나라 인사말을 건네고 쌀밥, 계란찜, 된장국, 두부처럼 적용하기 쉬운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아이, 맛있다! 잘 먹네!’ 하면서 응원하기도 하고, 정말 먹기 힘들어하는 반찬만 나오는 날에는 대체음식을 만들어 주셨다. 또한, 영양 교육 시간에 모하메드네 나라의 고유음식을 만들어 먹어보기 시간을 가짐으로 우리나라 아이들도 다른 나라 문화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리고 담임선생님은 놀이시간에 이미 친해진 아이들과 한 조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꼬마야 꼬마야 혹은 얼음 땡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다. 모하메드는 처음에는 교실 문 앞에서 서서 주저하면서 들어가지 않으려 하다가 급기야 선생님이 밖으로 나와서 손을 잡고 끌어아 들어오던 아이였는데, 놀이에 참여하면서 많이 개방적으로 변했고 표정도 밝아졌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가족들을 중심으로 단결하는 풍습이 있어서 낯선 사람에 대한 긴장이 한국 아이들보다 더 심했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정을 주고 따르려 하는 경향이 강했던 것이다.

또한, 담임선생님은 시간을 마련해서 아이들에게 계기 교육을 하셨다. “애들아, 모하메드가 우리하고 다르게 생겼다고 놀리면 안 돼요. 우리와 다른 음식을 좋아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선생님은 모하메드만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하메드가 한국 생활에 서투르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하메드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사이좋게 놀아야 해요.”

지도

일 년이 다 지날 무렵이 되자, 모하메드는 키가 부쩍 커졌고 한국말도 잘하게 되었다. 아이들도 서로 어울려 축구와 놀이를 하며 친하게 지냈다. 아이들은 정말 가르치는 대로 크다. 선생님이 친하게 지내라고 가르쳤더니 정말 친구가 되어주는 게 아닌가. 요즘 모하메드는 다른 아이들처럼 롱패딩을 입고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어울려 걸어 다닌다. 지나갈 때 ‘아, 참 잘생긴 남자아이구나.’ 했는데, 아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모하메드 아닌가! 미소도 말투도 이미 한국 아이가 다 됐다. 모하메드야, 한국에서 편안하게 잘 지내렴. ②

쥐구멍에도 별이 드는 해

쥐는 인간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은 동물이다. 병균을 옮기고 음식을 훔치며 이간질을 한다. “나라에는 도둑이 있고 집안에는 쥐가 있다.”라는 속담이 있는가 하면 ‘양상군자(梁上君子)’라는 사자성어도 있다. 양상군자란 들보 위에 숨어 있는 도둑을 뜻하므로 쥐를 가리킨다. 서양에서도 쥐를 뜻하는 영어 ‘rat’는 비겁한 자, 배신자, 스파이, 경찰 끄나풀 따위의 부정적인 뜻으로 널리 쓰인다. 이처럼 혐오스러운 동물로 여겨지다 보니 손톱을 깎아서 함부로 버리면 쥐가 주워 먹고 그 손톱 주인으로 둔갑한다는 금기도 전한다.

그러나 쥐가 항상 부정적인 이미지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20년은 경자년(庚子年)인데 경은 흰색에 해당한다고 한다. 흰 쥐는 애완용으로 사랑받고 있으니 쥐의 해라고 지레 꺼림칙할 필요는 없다. 이솝우화에는 사자를 구하는 고마운 생쥐 이야기도 나오고, 고양이 톱을 골탕 먹이는 제리 역시 결코 밟지 않은 쥐다.

전통 시대에 쥐가 가진 긍정적 이미지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다산성이다. 쥐는 12지신 가운데 으뜸으로 ‘자(子)’로 표기된다. 이 글자는 자식, 새끼를 의미한다. 쥐는 종에 따라 다르지만 1년에 3~4회, 1회당 6~9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이미 3000만 년 전 처음 등장한 쥐는 오늘날 220속 1800여 종에 달하는 다양성을 자랑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포유류의 1/3은 쥐라고 한다.

다산성과 연관된 쥐의 또 다른 긍정적 이미지는 근면성이다. 쥐띠 해에 나는 사람은 부지런하다는 속설도 있다. 자식을 많이 낳으니까 부지런해야 하고 부지런한 만큼 저장해 놓은 재물도 많다. 한 설화에 따르면 옛날에 한 도둑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코에서 팔알만 한 생쥐가 기어 나왔다. 바느질하던 아내가 잣대와 다리미질 판으로 생쥐에게 길을 터 주었다. 그랬더니 생쥐는 남편이 몰래 감추어둔 황금더미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것이다.



재앙을 미리 감지하는 쥐처럼 항상 조심하고 부지런히 일하면, 경자년은 “쥐구멍에도 별이 드는” 상서로운 해가 될 것이다.

쥐가 이처럼 부(富)를 상징하게 된 것과 관련된 창세 설화도 있다. 함경도에 전하는 <창세가>라는 무가에는 미륵과 쥐가 등장한다. 미륵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쥐에게 물과 불의 근원을 물었다. 쥐가 그것을 알려주면 무엇을 주겠느냐고 묻자 미륵은 이 세상의 모든 쌀뿔주를 차지할 권리를 주겠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물과 불을 사용할 수 있었고 쥐는 인간의 쌀을 제 것처럼 챙기게 되었다.

다산성·근면성·부를 상징하는 쥐

쥐는 이처럼 부지런하고 재물을 잘 모으기 때문에 쥐띠 해에 태어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곤궁할 일이 없다고 한다. 물론 그런 속설만 믿고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 무슨 재난을 당할지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쥐는 인생에 잠복해 있는 재앙을 경계하는 뜻도 가지고 있는 동물이다. 해인사 법당 앞 돌기둥에는 올라가는 흰쥐와 내려가는 검은쥐가 새겨져 있다. 이는 석가 모니의 가르침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이 코끼리에 쫓겨 달아나다가 우물 안쪽으로 뻗은 나무뿌리에 매달렸다. 코끼리는 위에서 으르렁거리는데 아래에서는 용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별까지 날아와 그 사람을 마구 쏘아대는데, 흰쥐와 검은쥐가 나타나 나무뿌리를 잡아 먹고 있었다. 이 이야기에서 코끼리, 용, 벌 따위는 인생의 온갖 위기를 상징하고, 흰쥐와 검은쥐는 낮과 밤, 즉 거침없이 흐르는 시간을 의미한다.

이처럼 유수 같이 흐르는 시간을 상징하는 흰쥐와 검은쥐는 유명 사찰에서 파는 지혜동자상과 자비동자상에도 등장한다. 자비동자상은 무릎과 어깨에 흰쥐와 검은쥐를 올려놓은 채 잠들어 있고, 지혜동자상은 초롱초롱한 눈으로 경전을 보고 있다. 흰쥐와 검은쥐는 경전이 놓인 상의 위아래에서 지혜동자상을 쳐다보고 있다. 시간은 항상 당신 곁에서 흐르고 있으니 자비동자처럼 잠들지 말고 지혜동자처럼 깨어 있으라는 뜻이 두 동자상에 깃들여 있다.

쥐는 시간을 경계할 뿐 아니라 실제적인 위험을 미리 알아차릴 줄 아는 동물이다. 옛날에는 집안에 쥐가 보이지 않으면 불길한 조짐으로 여겨 집 안팎을 단속했다. 쥐, 뱀이 지진이나 화산 폭발을 미리 감지한다는 현대 과학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습속이다. 해마다 정월에 처음 맞이하는 쥐날을 상자일(上子日)이라 한다. 이날은 모든 것을 경계하고 근신하는 금기의 날로 여겨져 왔다. 재앙을 미리 감지하는 쥐처럼 항상 조심하고 부지런히 일하면, 경자년은 “쥐구멍에도 별이 드는” 상서로운 해가 될 것이다. ㉠

새해,

주문진에서 맞는 해돋이

바다는 바다다. 파도 소리를 찾아 달리는 데 이유는 없다. 매서운 바람과 깊은 산골과 아득히 먼 곳에서부터 번져오는 빛. 어미의 품 같은 바다가 소리로, 냄새로 안부를 전해오는데 고개를 돌리지 않을 수는 없을 터. 철썩철썩 넘실거리는 물결이 눈 위에 허영디허연 물거품을 남기고 가는데 그 품을 찾지 않을 수는 없을 터. 세상이 온통 어둠과 고요에 잠긴 시간, 동해를 향해 달린다.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지점에서 태어나는 빛의 노래를 눈에 그리고 귀에 담기 위해 어둠의 굴을 지나온다. 바야흐로 수평선에 푸르고 맑음을 덧대 주는 계절, 겨울이다.





1 주문진등대
2 주문진 수산시장
3 아들바위공원



해변 도로를 타고 일출을 향해 가는 길목, 바다를 앞질러 나온 파도 소리가 귀를 타고 들어온다. 차 문을 열고 바다를 마주한다. 불을 지나는 차디찬 공기가 얼굴을 얼얼하게 한다. 얼음 같은 바람이 관통해 간 모든 것이 서늘한데 눈만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다. 파도 소리에 둘러싸인 채 가슴에 겨울을 담는다. 찻짝찰짝. 흘러왔다 밀려나기를 반복하는 파도와 투명한 새벽의 추위가 한 해의 시작을 알려준다. 새해가 도래했노라고, 지난 시간에 작별을 고하고 새날을 맞이할 시간이 되었노라고. 여명을 기다리며 모래 위에 2020을 적어 내려간다. 하늘과 바다와 땅 가운데 서서 한 해가 훈기로 가득 차기를, 온정 넘치는 일 년이 되기를, 모두가 저마다의 빛을 발하기를 염원한다.

어둠이 물러나기가 싫더니 바다가 해를 내놓는다. 세사의 사연이 수면 위로 고개를 내민다. 노랗고 빨간빛이 보석이 되어 하늘에, 그리고 바다에 맺힌다. 처열씩처열씩. 파도는 붉지도 푸르지도 않은 수평선을 경계로 하늘의 이야기와 땅의 사연을 엮어낸다. 찬연히 반짝이는 바다와 해를 담은 눈이 더 따뜻해져 오는 것은 두 팔 벌려 나를 기다리고 있는 새날이 있기 때문이리라. 떠오르는 태양을 벗 삼아 해

변을 걷는다. 해는 저 많은 물을 벌겍게 물들이며 비상했다, 덜어낸 눈물만큼 평온해질 수 있다, 유연해질 수 있다는 생각 끝에 이른 곳 소돌해변이다.

이곳은 마을 형상이 소가 누워 있는 모양과 닮아 '소돌(牛岩)'이라 불리는 마을에 있어 소돌해변이라 불린다. 소돌해변은 소를 닮은 바위는 물론 기이한 모형의 기암괴석과 노부부에게 태기를 주었다는 아들바위, 바다 전망대, 해안산책로 등에 둘러싸여 있다. 배호의 노래가 나오는 파도 노래비를 지나온다. 투명한 물이 비춰내는 상이 물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을 선사한다. 물결을 따라 하늘거리는 이끼의 몸짓과 함께 완전해진 아침을 맞아들인다. 바람이 차다. 머플러로 입을 감싸두고 산책로를 따라 걷는다. 시리고 따갑지만 묘하게 따뜻하기도 한 바람을 가르다. 차갑기에 더 따스할 수 있는 겨울이 실감 난다.

전사한 아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 얻은 새 생명에 대한 사연이 깃든 아들 바위를 지나온다. 해안 초소를 거쳐 구멍이 천연 액자가 되어 바다를 담아내고 있는 기이한 모형의 바위를 만난다. 바위가 세상 어디에도 자연의 손길을 넘어설 수 있는 예술가는 없다는 울림을 전해온다. 전망대로 방향

을 튼다. 경사진 계단 끝 무렵 서낭당 터가 있다. 자리를 옮긴 해당화 서낭당을 눈에 담은 후 전망대로 간다. 해안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바다를 마주하며 소리 없는 자연의 가르침을 읽는다. 넘실거려야 하는 숙명을 타고난 것이 바다다. 거기에 파고를 더하고 색을 입힌 것은 사람이다. 수평선과 대문 있는 집과 노란 해와 전망대가 인간과 자연이 함께 빚어내는 장대한 서사가 되어 가슴을 채워 온다.

동네 곳곳의 연탄, 메주, 꽃감, 오징어로 눈요기를 하며 미로 같은 골목을 걸어 내려온다. 천장 낮은 집들이 한 사람 지나기도 빠듯하게 좁은 길을 따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다닥다닥 붙은 집을 보며 생각한다. 어쩌면 인생은 서로 어깨를 맞대고 앉아 온기를 나누는 일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바다에 경계가 없듯 애초부터 길에도 경계는 없었을 거라고.

주문진 수산시장으로 간다. 고깃배가 드나드는 살아있는 시장에서 사람 냄새가 녹진하게 배어난다. 복어, 오징어, 방어, 대게, 가시배새우. 갓 잡아 올린 생선과 해물이 주문진 시장을 채우고 있다. 상인과 어부의 찌렁찌렁한 목소리와 바다를 오가는 배와 방문자들의 바쁜 발걸음이 얼

음처럼 식은 바다에 생기를 불러들인다. 파도에서도, 바람에서도, 해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날것의 퍼덕거림이 새해의 활기를 전해온다. 손님이 생선을 손짓하고 상인이 물고기를 잡아 들고 지갑이 열리고 웃음이 오가고. 시장에 삶이 있다, 바다가 있다, 이야기가 있다. 물고기에 깃든 대양의 이야기는 이제 어부에게서 상인에게로 상인에게서 다시 시장을 찾은 이들의 집으로 전해지리라. 퍼덕거리는 생선의 몸짓을 보며 어머니의 품 같은 바다의 평온이 집마다 깃들기를 기원한다.

바다를 한껏 가슴에 담고 가야겠다. 따끈따끈한 북극으로 속을 든든히 한 후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아 노트를 꺼낸다. 바다를 앞두고 손을 움직인다. 하얀 종이가 수평선과 등대와 방파제로 채워진다. 줄지어 선 촬영지를 찾은 방문객들을 보며 몇 자를 더해 둔다. 이야기를 만드는 것은 사람이다. 이야기의 터전이 되는 것은 자연이다. 신화는 그렇게 적혀가는 것이다. 고개를 들고 창 너머 바다를 응시한다. 하얀 파도 위로 '흐트러진 머리칼은 바람으로 다스리자. 푸른 빛 이빨로는 아침 해를 물자'던 혜산 선생의 시구절을 덧대본다. ㉠

학생 맞춤형 다양한 교과서 개발 확대된다



앞으로 학교 현장 수요에 맞는 교과서의 개발·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인정도서의 심사 절차를 자율규제 방식으로 완화해 심사기간이 기존 9~10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학교에 필요한 교과서 공급 시기를 한층 앞당길 수 있을 예정이다. 또,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학교에서 새롭게 개설하는 교과목에 대해 해당 인정도서의 신청 기한을 6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단축해 다양한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학교의 교과서 선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시 최초 사용을 위해 선정하는 경우와 이미 선정된 것을 변경하는 경우로 나뉘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구분이 없어져 교과서 변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디지털교과서의 검정 실시 공고 기간은 기존 교과서와 다르게 단축하여 설정했다. 검정도서는 최초 사용 학년도 개시 1년 6개월 이전까지 검정 실시 공고를 해야 하는데, 디지털교과서 등 전자저작물의 경우에는 6개월 이전까지로 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개발·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공주대·덕성여대 등 6개교, 2020년 국제협력선도대학 선정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20년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의 신규 사업단으로 공주대, 덕성여대, 서울과기대, 성균관대, 인제대, 한양대 등 6개교를 최종 선정했다.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은 국내 대학이 개발도상국가 대학이 필요로 하는 학과(단과대학) 신설 또는 리모델링, 교수역량 강화, 수원국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총 7년으로 연간 1~4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의 대표적인 고등교육 공적개발원조(ODA)인 본 사업은 2012년 이화여대, 포항공대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15개 대학이 13개 국가에서 현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속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이 사업을 운영 중인 고려대는 우즈베키스탄의 환경 문제에 집중하여 타슈켄트의 대기 환경보건과학과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환경보건 모니터링 연구와 공무원 대상 워크숍 실시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 포항공대의 에티오피아 아다마 대학에 에티오피아 최초 재료공학과 신설 지원, 인제대의 스리랑카 국립간호대의 교육과정 개편 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사업단의 협력국가로 중남미 국가에서 처음으로 페루가 포함되고, 신남방국가 2개(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스리랑카, 탄자니아로 대륙별로 고르게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교육부, 올해 학술연구지원사업에 7,988억 투자



교육부가 올해 학술연구지원사업에 7,988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141억 원 증가한 규모로 특히 신진 연구자의 창의·도전적 연구 촉진, 대학의 연구기반 구축, 보호·소외 분야 연구 지원, 학술 인프라 구축 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교육부가 1월 3일 발표한 '2020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중장기계획'에 따르면,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신진연구자들에게 2,303억의 연구비를 투자한다. 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731억을 투자하여 지속가능한 연구거점으로 대학 연구소를 육성한다. 인문사회 분야 연구소는 197개까지 늘려 400명 내외의 박사급 연구자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공 분야는 114개 대학연구소에서 600여 명의 연구인력을 지원한다. 국가차원에서 보호·육성이 필요한 순수기초 분야 연구에도 전년 대비 2배 증액한 174억 원을 투자한다. 이공 분야는 연구여건이 열악한 보호·소외 분야, 지역대학 우수 연구자를 선정하여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 10년까지 지원한다. 학술 인프라 구축에는 167억 원을 지원한다. 한국학 통합 플랫폼 구축 서비스를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자 간 연구격차 해소를 위해 주요 학술지 논문 제공을 확대한다. 또한,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연구윤리 예방교육 확대와 검증의 체계화를 추진한다.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행정업무와 재정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지원하는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 통합시스템 K-에듀파인이 1월 2일 개통됐다. 이번 K-에듀파인 개통으로 기존의 재무와 행정업무를 완전 통합하고 수기 작업의 전자화, 대외기관 정보연계 확대, 전자금융서비스 고도화 등 기존의 불편을 대폭 개선하여 업무 효율성과 재정 투명성 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K-에듀파인의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고지 및 전자수납을 추가 도입해 학부모와 민원인의 편의를 높였다.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와 호환성을 확보해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업무환경을 제공했다. 또, 카드관리시스템 도입 및 대외기관 정보 연계를 대폭 확대하여 재정 자료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높였으며, 전자증빙 환경도 구현했다.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재정과 행정업무를 단일 환경으로 통합하고, 단순 반복적인 재정 문서의 경우 간편·다건 결재 방식을 도입하여 사용자가 보다 신속하고 간소하게 결재를 처리할 수 있게 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했다. 또한, 목적재원(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부터 집행, 정산까지 관리체계를 고도화하여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교육재정 업무 환경을 조성하였다. ㉠

K-에듀파인 개통...교육비 스마트폰으로 납부하세요



지난호 독자 리뷰



[특별기획_2019 교육부가 걸어온 발자취] 올해 교육부가 진행한 여러 가지 정책 중 가장 눈에 띈 것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이었다. 이제는 맞벌이 부부가 아니면 자녀 교육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것을 생각할 때, 고교 무상교육은 학부모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그 큰 범위의 비용이 국가의 부담으로 넘어간 것을 생각하면, 이와 관련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정부에서는 교육부의 기존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확보해야 다른 정책 추진에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으리라고 본다. **모니터단 윤현아**

[꿈이 영그는 현장_대전선화초등학교] 대전선화초등학교 학생들이 김장하는 기사가 인상 깊었다. 문득, 학생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김장을 하러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손과 눈이 맵고, 몸도 힘들었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달했을 때 학생들의 마음은 따뜻했을 것이다. 학생들이 봉사의 즐거움과 기쁨을 느꼈으리라 생각한다. 이런 활동이 진정한 인성 교육이 아닐까. 앞으로 이러한 활동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모니터단 황순철**

[대학교육_교육을 혁신하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초, 중학교에 SW교육이 필수화가 됐다는 기사들을 접하면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엄마로서 막연히 새롭게 배우고 공부해야 할 것이 생겼다는 부담감에 덜컥 겁부터 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편을 읽고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좀 더 많이 알고 싶어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보면서 교육혁신이라는 말이 새삼 친근하게 다가왔다.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하는 감탄과 동시에 기대감을 가져본다. **모니터단 김형미**

EVENT

1월호 <특별기획>을 읽고
'과정 중심 평가란 ()이다'의
빈칸을 자유롭게 채워주세요.

다음달 5일까지

'행복한 교육(<https://happyedu.moe.go.kr>) 홈페이지 ⇨ 이벤트 참여'에
남겨주시면, 당첨되신 분께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문의 02-2271-0992

지난호
당첨자

정석만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상흥부1길
조한석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최영수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천로

발행일 2020년 1월 15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편집인 대변인 한상신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최성부
사무관 양서연 주무관 박형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대변인실 323호

편집실
편집장 이순이
기자 양지선 (객원)김혜진
사진 김경수
디자인 김자영
마케팅 류광민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정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촌
TEL 02-2271-0992

교육현장에 수정·보완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상시 업그레이드되는 스마트한 교과서 질 관리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



(교육부/시·도교육청/발행사와 함께)

현장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교과서 활용 정보 제공



전문적 검토 업무 내실화 시스템 개선 지원체계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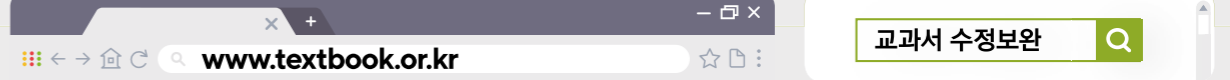
각 메뉴마다 제공되는
입력창에 검색어를
기입하세요.
교과서 수정·보완 내용 및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
하게 파악,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서를 만드는 수정·보완 시스템

인터넷 주소창엔

포털사이트 검색창엔



TIOS 상담전화 1566-8572